

김 정 희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미술교육에 있어서 창의적인
미술활동 지도방법 연구
-콜라주 기법을 중심으로-

2006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미술교육전공

이 지 연

미술교육에 있어서 창의적인
미술활동 지도방법 연구
-콜라주 기법을 중심으로-

김 정 희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5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미술교육전공

이 지 연

인 준 서

이지연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印)

심사위원 _____ (印)

심사위원 _____ (印)

2005년 12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개요

고도화된 현대사회로 갈수록 집단보다는 개인의 비중이 커지면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며 집단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개인의 가치가 점점 중요하게 되었다. 이처럼 급변하는 현실에서 인간됨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갈 방편으로 가장 기대되는 능력이 바로 창의성이다. 창의성은 감성, 창조, 개성을 강조하는 미술교육을 통해 길러질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아동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 경험 등을 반영하여 새롭고 독창적인 표현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획일화된 주입식교육만으로는 미술교육을 통한 창의성 발달을 기대하기 어렵다. 아동들의 정서와 창의성을 존중한다는 의도로 미술시간을 아동의 자발성과 흥미, 욕구 등에 전적으로 맡기는 분위기는 오히려 창의성 발달의 지연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교사는 아동들에게 방임적인 미술교육이 아니라 새로운 재료와 미술기법을 활용한 콜라주를 체험하도록 함으로써 스스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아동의 잠재능력을 극대화 시켜야 한다.

본 연구는 총 5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장 서론에서는 미술교육에 있어서 콜라주 기법을 활용한 표현활동의 연구 필요성 및 목적, 내용, 방법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2장 이론적 배경에서는 콜라주의 개념과 현대 미술에서 전개 과정을 대표적인 미술 사조를 통해서 알아보았다. 3장에서는 콜라주 기법과 창의성의 관계를 살펴보고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법을 알아봄으로써 그에 따른 교육적인 효과를 제시해 보았다. 그리고 4장 미술교육에 있어서 콜라주 기법의 활용에서는 7차 교육과정에 나타난 초등학교 콜라주 수업 내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지적해 보고 재료적 측면에서 콜라

주 기법의 응용방안을 모색하여 수업계획안을 작성하였다. 수업계획안은 학년별 아동의 수준을 고려하여 다양한 콜라주 기법을 적용시킬 수 있도록 구안해 보았으며 5장 결론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생동감과 의욕을 부여하는 콜라주 기법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미술 수업에 콜라주를 도입시킴으로써 얻은 연구 결과는 아동들이 재료의 탐색으로 다양한 표현 가능성을 경험하며, 그에 따른 주변 사물에 대한 관찰력 증진과 자발적 흥미 유발 등이 있다. 아동들은 자신이 표현하려는 물체를 사실적으로 그리지 않고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사진이나 또 다른 매체를 붙여 표현함으로써 그림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새로운 기법을 작품 속에 응용하여 표현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않은 화면 효과를 경험함으로써 그림에 대한 상상력이 풍부해지며 독창적인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
II. 콜라주의 이론적 배경	4
1. 콜라주의 개념	4
2. 현대미술과 콜라주 기법	5
1) 입체주의의 콜라주	6
2) 미래주의의 콜라주	9
3) 다다이즘의 콜라주	10
4) 초현실주의의 콜라주	13
5) 팝아트의 콜라주	14
III. 콜라주 기법에 의한 창의력 신장과 교육적 효과	17
1. 콜라주 기법과 창의성의 관계	17
1) 창의성의 개념	17
2) 콜라주 기법과 창의성의 상관관계	19
2. 콜라주 표현을 통한 교육적인 효과	20
1) 수업에 적용 가능한 콜라주 기법	20
2) 콜라주 기법의 교육적 효과	25

IV. 미술교육에 있어서 콜라주 기법의 활용	28
1. 초등학교 콜라주 수업의 활용 실태	28
1) 제 7차 미술 교육과정 분석	28
2) 콜라주 지도내용의 분석과 문제점	37
2. 재료를 통한 콜라주 기법의 응용 방안	41
3. 콜라주 기법을 응용한 수업계획안	53
V. 결론	60

도 판

참고문헌

ABSTRACT

표 목 차

<표 1> 콜라주와 창의성의 특성 비교	19
<표 2> 제 7차 미술 교육과정 분석	28
<표 3> 콜라주 재료 분류	43
<표 4> 수업계획안 1	54
<표 5> 수업계획안 2	55
<표 6> 수업계획안 3	56
<표 7> 수업계획안 4	57
<표 8> 수업계획안 5	58
<표 9> 수업계획안 6	59

그림 목 차

- <그림 1> 정지호, 6학년, 화가가 되고 싶어요, 2005, 종이에 아이스크림막대, 색지, 티슈, 부직포, 자갈 콜라주, 수채물감, 54×39cm …… 44
- <그림 2> 이주연, 5학년, 천문학자를 꿈꾸며, 2005, 종이에 색종이, 털실, 부직포, 잡지, 이쑤시개 콜라주, 수채물감, 54×39cm …………… 45
- <그림 3> 김세화, 4학년, 미술선생님, 2005, 종이에 부직포, 천, 레이스, 잡지, 사진, 압정 콜라주, 수채물감, 54×39cm …………… 46
- <그림 4> 성다운, 5학년, 밀림탐험, 2005, 종이에 나무껍질, 나뭇가지, 털실, 부직포, 단추, 골판지, 색지, 수채물감, 39×54cm …………… 47
- <그림 5> 고주희, 1학년, 시골집, 2005, 종이에 낙엽, 나뭇가지, 꽃잎, 쌀, 마카로니, 파스타 콜라주, 수채물감, 크레파스로 프로타주, 포스터물감, 54×39cm …………… 48
- <그림 6> 김가연, 2학년, 꽃과 화병, 2005, 종이에 색종이, 골판지, 무늬가 있는 천 콜라주, 수채물감, 색연필, 39×54cm …………… 49
- <그림 7> 곽희정, 2학년, 눈사람, 2005, 색지에 솜, 무늬가 있는 천, 목장갑, 단추, 나뭇가지 콜라주, 32.5×44cm …………… 50
- <그림 8> 김민수, 3학년, 도시풍경, 2005, 골판지에 알루미늄 호일, 스티로폼 볼, 셀로판지, 병뚜껑, 콜라주, 47×33cm …………… 51
- <그림 9> 이은송, 4학년, 강아지, 2005, 색지에 A4용지, 색종이, 색지, 주름지, 한지 콜라주, 34×27cm …………… 52

도 판 목 차

- <도판1> 파블로 피카소, 등의자가 있는 정물, 1912, 캔버스에 유채, 등나무
의자 문양의 종이, 타원형의 밧줄 콜라주, 34.9×27cm
- <도판2> 조르쥬 브라크, 과일접시와 유리잔이 있는 정물, 1912
종이위에 목탄, 벽지 콜라주, 44.5×62cm
- <도판3> 한스 아르프, 우연의 법칙에 따라 배열된 사각형들, 1917
찢어 붙인 종이, 34.6×48.6cm
- <도판4> 마스셀 뒤샹, 샘, 1917, 기성품인 변기
- <도판5> 쿠르트 슈비터스, 메르츠 410 무엇이든, 1922
신문지와 각종 전단 같은 종이를, 새의 깃털 등을 콜라주
- <도판6> 라울 하우스만, 미술평론가, 1919-20, 포토몽타주, 25.4×31.8cm
- <도판7> 막스 에른스트, 잎사귀들의 습성, 1925
종이 위에 구아슈로 프로타주, 26×42.2cm
- <도판8> 리처드 해밀턴, 오늘날의 가정을 이토록 색다르고 멋지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1956, 몽타주, 24.8×26cm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이 시대를 움직이는 힘의 근원 중 하나는 창의성이다. 이러한 창의성이 우리의 생활 자체에 베어있지 못하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정보화 시대, 경쟁의 시대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으며 우리의 삶 자체는 무의미할 것이다.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창의성은 미술활동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미술교육을 통해 개인의 잠재되어 있는 무한한 창의성을 발견하고 표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미술은 우리의 느끼고 생각하는 방식을 새롭게 변화시켜 줄 뿐 아니라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게 만드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미술교육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닌 자기만의 자유롭고 독창적인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창의성을 증진시킨다. 특히 미술교육은 새로운 아이디어나 자신의 통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창의성을 길러주어 아동들이 적극적이며 융통성 있는 긍정적 인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

미술교육이 인간의 창의적인 잠재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어 온 것은 사실이나 미술교육을 통한 창의성 발달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획일화된 주입식교육으로 인하여 현저히 저하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미술교육에 있어서 아동의 창의성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재료와 기법의 활용을 통한 새로운 학습내용구성 등 교사의 적극적인 수업전략이 전제되어야 한다. 미술수업에 있어서 다양한 재료와 기법은 아동의 표현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도구이며 작품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소재이다. 따라서 교사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 미술은 아동의 흥미와 호기심을 자극하여 자신의 세계를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아동의 창의성을 발달시키기 위하여 주변에서 재료를 쉽게 구하여 작품에 활용할 수 있는 콜라주 기법을 선택하였다. 콜라주 기법은 평면 위에 도입된 매체가 빚어내는 독특한 조형감과 재료를 조화롭게 배치하고 조합하는 과정을 통한 새로운 시각언어를 창조하는 능력을 길러준다. 주변의 사물과 이미지를 제작자의 의도에 따라 화면에 재구성하는 콜라주 기법을 통해 아동들의 미술 표현의 범위는 무한대로 확장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러 가지 재료와 폭넓은 표현 방법을 습득함으로써 아동의 창작 욕구를 늘리고 미술의 범위를 넓혀주는 통로로써 콜라주 기법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콜라주 기법을 미술교육에 응용해 봄으로써, 창의적이고 자유롭게 내면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연구하였다.

1. 콜라주 기법을 통한 창의성 신장과 교육의 효과를 알아보고 미술수업에 있어서 콜라주 표현의 가능성을 알아보았다.
2. 초등학교 미술교과에 나오는 콜라주 수업의 활용실태를 분석해 보고 재료적 측면에서의 응용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3. 응용 방안을 통한 작품분석과 콜라주 기법을 활용한 수업 계획안을 제시하여 아동의 창의성을 계발하기 위한 방향을 탐구하였다.

연구방법은 먼저, 20세기의 현대 미술 사조에 나타난 콜라주 기법에 관한 문헌연구와 작품분석을 통하여 초등미술에 있어서 창의적인 수업을 위한 기

초이론을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초등학교 미술교육에 관계되는 현행 미술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 참고문헌을 토대로 효과적인 콜라주 기법을 적용한 수업 방식의 예를 제시하였다.

II. 콜라주의 이론적 배경

1. 콜라주의 개념

일반적으로 콜라주는 재료를 모아서 종이나 천 조각 등에 붙이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 콜라주란 단어는 원래 프랑스어인 coller에서 유래되었는데, 이 coller라는 말은 붙이거나 접착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¹⁾ 넓은 범주에서 콜라주의 한 기법인 파피에 콜레는 하나의 기법으로 보기보다는 콜라주에 도입되는 특정한 재료로서 “Cut Paper ; 종이 잘라 붙이기”의 특징을 수반한다. 이러한 콜라주와 파피에 콜레의 범주를 가장 분명하게 구분한 기록은 미술사가 골딩(Golding)에게서 볼 수 있는데, 그는 종이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종이가 갖는 조형적 가치를 우선하는 경우 즉 화면의 효과를 최종적으로 할 때에만 파피에 콜레라하고 그렇지 않은 비유적, 상징적, 연상적인 효과를 콜라주라고 정의한다.²⁾

콜라주는 20세기 미술의 기법 상 가장 큰 발명의 하나로 볼 수 있는데, 미술 분야 뿐 아니라 건축, 사진, 컴퓨터 그래픽, 광고, 일러스트디자인 등의 다양한 장르에도 폭넓은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무엇보다도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현실 생활의 물체들을 작품에 도입함으로써 종전의 미술 개념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점에 큰 의미를 들 수 있다.

인쇄된 이미지 혹은 각종 오브제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콜라주 기법은 본래의 재료적 특성과 상이한 모습으로 표현되어지기도 한다. 재료 원래의 모습을 완전히 감추어 버리고 마치 또 하나의 독립된 전혀 다른 표면처럼 보일 수도 있고, 세계에 대한 일상적이고 관습적인 감각과 언어를 참신하게

1) 월간미술 편집부, <세계미술용어사전>, 중앙일보사, 1989, p.93-99

2) John Golding, <Cubism ; A History and an Analysis N.Y.>, 1959, p.107-108

하여 그 진부한 현상 이면에 놓여 있는 복잡한 관계를 드러내기도 한다. 또 선택된 재료들의 특성에 주목하여 훨씬 조각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재료들이 조합해서 만들어 내는 이미지는 재료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발상에 있어서 경계가 대단히 모호하여, 콜라주라는 용어가 ‘풀로 붙여진 그림’이라는 넓은 의미의 정의로 포괄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³⁾

입체과에서 시작한 콜라주기법은 시대가 변함으로써 여러 유파나 이즘이 발생할 때마다 그들의 적절한 표현수단이 되어 독창적이고 참신한 표현으로 발전시켜 나갔다. 이것은 회화의 재현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그 스스로가 독자적인 오브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과 함께 물질이 다른 대상의 표현을 위한 재료일 뿐만 아니라, 그 스스로가 작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실현하였다. 이러한 기법은 미래주의자들에 의해 여러 재료로 구축된 조각, 다다미술가들에 의한 일상의 쓰레기들이 결합된 콜라주와 앓상블라주⁴⁾로 등장하게 되었다. 사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사물자체가 작품으로 제시되는 오브제 미술로까지 확대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표현방법은 미술에서 재료의 해방과 회화의 사물개념 획득에 그 의의가 있다.

2. 현대미술과 콜라주 기법

현대미술에 있어서 현대라 함은 문화적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현대미술의 역사를 살펴보면 현대주의는 프랑스 혁명 이후 낭만주의부터 현재까지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때부터 기존의 예술표현양상에 변화가 가속되었다. 20세기의 산업발전에 따른 재료발달 및 가치관의 변화 속에서 회화주제를 표현하는 새로운 양식인 콜라주 기법이 미술사에 탄생하게 되었다.

3) 박찬국 외17인, <현대미술의 기초개념>, 도서출판 재원. 2001, p.316

4) 앓상블라주(Assemblage) ; '집합', '긋어모으다'라는 뜻으로 주로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이미 있었던 비예술적인 오브제를 긋어모아 작품을 구성하는 일을 가리킨다.

미술사에 있어서 콜라주라는 말이 등장하게 된 것은 종합적 입체주의 시기의 피카소(Pablo Ruiz Picasso;1881~1978)와 브라크(Georges Braque; 1882~1963) 등이 화면에 생동감을 불어넣기 위하여 실제의 물질인 신문지, 나무 등을 화면에 붙여서 표현한 새로운 기법을 도입한데서 그 시발점을 찾을 수 있다. 손으로 그리지 않고 주위의 사물들을 임의로 선택해서 화면에 부착시켜 작품을 만든다는 생각은 미술사 속에서 예술적인 기법의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었고, 이후 여러 미술사조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음은 현대 미술사조와 콜라주의 관계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입체파에 의해 사용되기 시작한 콜라주 기법은 처음에는 화면의 구성요소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탈리아의 미래주의 화가는 현대의 역동감을 표현할 수 있는 속도감과 움직임을 입체주의에 첨가했고, 다다 작가들은 반 미술에 대한 그들의 생각의 표출을 위해 콜라주 기법을 독창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다다는 일상생활에 쓰이는 물체를 그림의 대상으로 차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초현실주의자들은 보다 심리적 성향의 감성을 반영한 콜라주를 창조하였는데 무의식의 표현수단으로써 콜라주의 발전된 기법을 창안하여 그 범위를 매우 넓게 확대시켜 사용하였다. 그것은 자동기술법, 프로타주, 데칼코마니 기법 등의 활용으로 신비롭고 환상적인 화면을 구성하고 있다. 콜라주 기법은 1950년대 일상적인 이미지에서 대중적 이미지의 양식을 낳은 팝아트의 영역에까지 도입되면서 끊임없이 변모되었다.

1) 입체주의의 콜라주 (1907~1914)

입체주의란 1907년에서 1914년 사이 피카소, 브라크 등이 주도한 회화상의 일대 혁명을 일컫는다. 르네상스 이후 회화의 전통인 원근법과 명암법, 그리고 다채로운 색채를 쓴 순간적인 현실 묘사를 지양하고, 야수파의 주장적인 표현을 폐기한 대신 시점을 복수화하여 색채도 녹색과 황토색만으로

한정시켰다. 또 자연의 여러 가지 형태를 기본적인 기하학적 형상으로 환원, 사물의 존재성을 이차원의 타블로로 재구성하고자 했다.

입체주의의 시기는 크게 3단계로 진전되었는데 그 시기를 입체주의 시대(1907~1909), 분석적 입체주의 시대(1910~1912), 종합적 입체주의 시대(1913~1914)로 각각 구분할 수 있다. 입체주의 시대는 세잔느의 영향을 받아 그의 사상을 여러 각도에서 모색해 나간 시기이다. 세잔느의 회화작품은 비원근법적이고 왜곡된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대상의 여러 각도에서 본 시점이 통합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그리고 분석적 입체주의는 대상을 작은 면으로 분해하여 여러 각도에서 본 사물의 입체적 모습을 동시에 표현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가시적 물체를 분해하여 공간을 재구성하는 분석적 입체주의 이후에 피카소와 브라크는 대상물의 재현을 다루는 2차원의 평면 속에 신문지 또는 입장권, 벽지, 딱지 혹은 노끈 등의 일상의 사물을 끌어들이 평면의 환영과 실제 사물을 통합하였다. 이러한 형태가 맞추어지면서 생겨나는 효과 때문에 색채를 화면에 다시 도입시키는 종합적 입체주의의가 나타나게 된다. 비로소 종합적 입체주의의 시대에 평면적인 색채 구성의 방법으로 콜라주나 파피에 콜레 방법이 채택되기 시작하였다.

회화의 역사상 입체주의에서 새롭게 표현매체로 등장한 콜라주 기법은 종래의 손으로만 그리던 회화기법에 종지부를 찍는 대혁신을 가져다주었다. 콜라주의 사용은 회화에 있어서 새로운 가능성과 아이디어를 무한히 제공하여 주고 있다. 의식에 있어 기본적인 변화를 만들어 낸 콜라주의 사용은 입체주의 구성을 전개시켰다. 이는 환영감을 창출하기보다는 표현형태와 질감에 있어서 종이, 신문, 악보, 형겔, 벽지, 나무 등을 화면 일부에 붙여서 정지시킨 입체주의의 화면에 새로운 조형효과와 물체감을 주었다.⁵⁾

피카소는 콜라주를 통해 추상적 형태 또는 자기 자신이 표현하려는 형태를 모아서 조립하거나 오버랩함으로써, 그것 자체가 산 작품이 된다는 사실

5) 이일, <현대미술의 시각>, 미진사, 1985, p.30

을 터득하게 되었다.⁶⁾ 그의 작품 ‘등의자가 있는 정물’〈도판1〉은 최초의 큐비즘 콜라주이다. 작품을 보면 실제로 붙여 놓은 등의자 일부가 캔버스에 나타나 있고 그림 자체가 빗줄로 테두리 쳐 있다. 따라서 붓과 물감으로 그리는 대신 등나무 의자가 인쇄되어 있는 기름칠 조각을 캔버스에 붙인다는 의미에서 콜라주가 등장하게 된다. 레몬, 오이, 유리잔, 파이프, 신문이 있는 카페의 정물장면에서 피카소는 짜여진 등나무 의자의 무늬가 인쇄된 유화 칠 조각을 부착함으로써 전통적인 방법을 전혀 사용함이 없이 등나무 의자를 표현했다. 그려진 문자 JOU가 JOURNAL(신문)을 의미하듯이 등나무 의자 일부의 모사물이 의자 전체를 의미한다. 그는 재현과 실재 사이를 조화 있게 혼합하고 형상을 물감대신 콜라주로 표현하여 실물의 리얼리티를 강조하였다.

1911년 브라크에 의해 시도된 파피에 콜레는 종전의 분석적인 화면에 마티에르의 확실성을 묘사하기 위해 회화적인 의도로 사용됐다. 형태의 조형성을 보다 우위에 둔 브라크는 ‘낮선 실재들이 갖고 있는 물질성 때문에 그것들 자신의 회화 속에 끌어 들인다’고 하였다.⁷⁾ 그가 만든 최초의 파피에 콜레는 ‘과일접시와 유리잔이 있는 정물’〈도판2〉이라는 작품인데 그는 이 작품에서 무늬가 인쇄된 벽지를 세 조각 붙였다. 아랫부분의 줄 쳐진 벽지는 과일 그릇과 포도주 잔이 놓여 있는 서랍을 암시하고 있고 위에 있는 종이에 써 있는 ‘ACE’란 글자는 맥주를 팔았던 바의 벽면을 암시하고 있다. 그는 바에 있는 탁자의 인공적 나뭇결과 입체주의적 정물을 혼합하여 현실적 재료와 허상적인 가구가 공존하도록 만들었다.

이와 같이 피카소는 화면 위에 이질적인 자료들을 병합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콜라주의 발견자요, 브라크는 종이 띠와 조각들이 채색화나 선화의 표면에 응용되는 콜라주의 한 특수화된 형태인, 파피에 콜레의 발명자였다

6) H. W. Enerson, 김윤수 역, <History of Art>, 1977, p.617

7) 카린 토마스, <20세기의 미술>, 동경, 1979, p.82

고 할 수 있다.⁸⁾ 입체주의의 피카소와 브라크에게 있어서 콜라주 기법은 순전히 화면의 미적 구성을 위한 조형상의 한 수단이었다. 그들은 시각적 공간을 묘사하기 위해 두꺼운 안료를 이용하기 보다는 기하학적 공간을 이용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의 기법은 현대적인 콜라주의 시작을 알리는 전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⁹⁾

2) 미래주의의 콜라주 (1909~1914)

추상의 발생과 더불어 미래주의자들이 입체주의의 수법을 사용하였다. 그것은 유동성이 있을 뿐 아니라 탄력적으로 작용하는 현대적인 수법이었기 때문이다. 미래주의 작가 중 보치오니(Umberto Boccioni), 발라(Giacomo Balla), 세베리니(Gino Severini;1883~1966), 카라(Carlo Carra;1881~1966)는 1910년 “제 1회 미래주의회화의 선언”에 서명하고, 콜라주와의 관계를 가지면서 한편으로는 그 속에서 대단히 본질적인 작품을 창조했다. 대상의 물질성을 파괴해서 입체주의에서 얻은 동시성의 사상을 정착시켜 표현의 새로운 길을 열었다. 그들은 산업화된 사회, 자동차와 비행기가 다니는 현대의 역동감을 표현할 수 있는 속도감과 움직임을 입체주의에 첨가했다.

보치오니는 1912년에 발표한 미래주의 조각 기술선언에서 발표하기를 “종래의 전통적 재료가 아닌 유리, 나무, 하드보드, 털, 피혁, 천 거울, 전구 등 모든 재료를 자유스럽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¹⁰⁾ 카라의 ‘애국적 선언’은 큐비즘의 콜라주가 어떻게 미래주의 강령에 맞게 상용되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글자들은 정치적인 의미를 확실히 하고 있는데, 마치 소리나 말처럼 당시 고조되고 있던 전시의 분위기를 잘 나타내고 있다. 활자의 콜라주가 탄탄한 조형적 구성으로 사용되고, 내용이

8) 니코스 스탠고스, <현대미술의 개념>, 문예출판사, 1994, p.89

9) 박찬국 외17인, <현대미술의 기초개념>, 도서출판 재원, 2001, p.320

10) McGraw Hill Dictionary of ART2, McGraw-Hill Publishing Co, LTD, 1969. p.456

나 재료에 있어 훨씬 도상적 의미를 주고 있어 다다콜라주 작업의 선조가 되었다.

3) 다다이즘의 콜라주 (1915~1924)

미래주의와 함께 20세기 초반의 강력한 문예운동이었던 다다는 이성과 합리에 대한 다른 의미를 지향했으며 부정과 파괴, 다시 말해 ‘반 예술’의 태도로 우연에 의거한 작업 태도를 보였다. 특유의 유머가 있었고 오브제를 사용하여 기성관념을 부정함으로써 현대 미술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사실상 다다이즘은 미래파나 큐비즘과 같은 하나의 양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에 대한 하나의 태도를 가르치는 것인데 즉, 미술이란 어떤 것이어야 한다는 기존 관념에 대한 도전 의식인 것이다. 미술에 대한 고정관념을 부수는 방법은 각각의 미술가들에게 다르게 나타나지만 그들의 공통점은 모든 가치에 대한 부정성에서 찾을 수 있다. 한마디로 다다의 정신은 반대로 특징지을 수 있는데, 그들은 반 도덕, 반 자연, 그리고 반 예술에까지 나아간다고 할 수 있다.

초기 다다는 허무적이고 반 예술적인 성향을 우연이라는 상황을 연출해 봄으로써 실마리를 풀어나가게 된다. 한스 아르프(Han Arp;1887~1966)는 우연 콜라주 기법을 사용하였는데 그는 부패한 사회의 미술보다는 오히려 우연히 던져진 종이 조각을 콜라주한 그의 작품이 더 많은 의미와 분별력을 가진다는 것이다. 그의 작품 ‘우연의 법칙에 따라 배열된 사각형들’<도판3>은 작가의 의도나 독창성을 배제한 우연의 원리에 힘입어 완성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다다의 콜라주가 아르프에 와서는 입체적인 대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예술이 되고 있다.¹¹⁾

마르셀 뒤샹(Marcel Duchamp;1887~1968)은 최초로 레디메이드에 의한

11) 미셀라공, 이일역, <새로운 예술의 탄생>, 정음사, 1976, p.23

작품을 시도하여 만드는 것이 아닌 서로 아무 관련이 없는 사물들을 엉뚱하게 결합시켜 일상적인 사물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도록 작품을 완성하였다. 그는 1913년 뉴욕 69연대병기고에서 열린 현대 미술제에서 콜라주의 영역을 확대한 레디메이드를 미술에 도입시키는 전환점을 만들었으며 1915년 독립전을 통해 폐품이 된 변기, 자전거 바퀴, 병 걸이 등 기성품을 창조적 활동의 예술로 변모시켜 나갔다. 뒤샹의 ‘샘’〈도판4〉은 남성용 소변기에 사인을 하고 자신의 작품이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기성품을 작품으로 제시한 레디메이드를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샘은 유일무이하게 존재하는 독특한 물건도 아니고 예술가의 독창성이 발휘된 작품도 아니지만 그는 이 물건을 선택하여 미술작품으로 선정함으로써 또 다른 예술이 성립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와 반대로 슈비터스(Kurt Schwitters; 1887~1948)는 일상의 폐품들을 그의 작업 속에 끌어들여 조형적 오브제를 성취함으로써 조형적 오브제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오브제 미학의 근원을 확립시켰다. 슈비터스의 콜라주는 큐비즘의 구성적 콜라주와는 아주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길에서 주워온 쓰레기나 다름없는 잡동사니들로 기묘한 아름다움을 자아내는 미술작품을 만들었다. 슈비터스는 못, 종이, 신문조각, 낀 종이, 기차표, 형겔조각 등을 작품의 소재로 사용한 후 채색하는 방법으로 그림을 그렸다. 그는 이 세상에 있는 쓰레기가 그의 예술로 될 것이라고 말한 바와 같이, 쓰레기 대상물에 대하여 신비롭고 새로운 감각으로 구성하여 새 아름다움을 창조하게 되었다. 물체를 조립하고 콜라주하여 작품을 제작했던 그의 작품은 말기에 가서 여러 물질이 혼합된 조각품 제작으로 발전되어 갔다. 그는 몇 점의 콜라주 작품에 ‘메르츠’¹²⁾〈도판5〉라는 명칭을 부여하게 되는데, 이는 광고지에서 잘라낸 무의미한 알파벳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후에 ‘메르츠’의 명칭은 그의 회화, 건축 조각, 모든 분야의 명칭으로 통용되게 된다.¹³⁾ 그는 미술은 그것 자체만의 특수한 상

12) 메르츠(MERZ) ; 슈비터스가 1919년 그가 제작한 콜라주 작품에 Privatund Korm MERZ BANK, Hanover라는 은행 광고 중에 찢어진 채 있는 종이 조각에 MERZ라고 인쇄되어 있던 것을 우연히 작품 명제로 사용한데서 비롯됨

황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의 일상으로 존재한다고 본 것이다.

다다의 반 예술적인 이미지를 위해 가장 적합한 양태는 포토몽타주로 탄생하였다. 대중매체의 기계적인 이미지들을 합성한 다다의 포토몽타주는 서로 관계없는 상이한 사진들을 구성하여 붙일 때 느껴지는 생소한 시각적 효과를 얻는 표현으로 근본적으로 일회적이고 개인적인 기존 예술 양식에 도전한 셈이다.¹⁴⁾ 포토몽타주의 창시자인 하우스만(Raoul Hausmann;1886~1971)은 “인간의 환경은 나날이 변한다. 인간 환경 즉, 그 사회 구조와 그에 잇따라 결과하는 심리적인 구조가 변화하는 그 만큼 허다한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 포토몽타주의 다양한 용도의 소재임을 말하고 있다.<도판6> 이 당시에 제작된 콜라주와 포토몽타주는 후에 새로운 예술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우리의 실생활과 연결된 체험과 관련된 세상을 만들어나가는 통로를 마련해 주었다.

이와 같이 다다주의는 전통의 부정 속에 개념의 실천을 인식하게 한 새로운 가치부여의 활동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에 무한한 조형 활동의 가치를 지닌 콜라주를 자신들의 예술을 실행하기 위한 표현수단으로 이용하였던 것이다. 결국 다다주의와 미래주의는 다 같이 기존 가치에 대한 부정을 근본정신으로 하고 있었다. 하지만 미래주의가 회화예술의 기존관념을 부정하는 가운데 사회적, 문화적 현실에 대한 자각과 변화하는 현실을 의식케 하는 현실 긍정적 태도를 견지한 데 비해, 다다는 현실 자체의 부정적 태도 속에 통념적인 예술의 거부와 예술이 현실에 보다 더 직접적인 활력소로서 통합되어야 한다는 가치를 부여하였다. 이렇듯 다다에 있어서 콜라주의 실현은 새로운 예술에로의 동기 실현이었으며 전개의 기본수단이었다.

13) 김병삼, <콜라주의 조형적 특성에 관한 고찰>,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p.38

14) 박찬국 외17인, <현대미술의 기초개념>, 재원사, 1995, p.39

4) 초현실주의의 콜라주 (1920~1950)

초현실주의는 다다가 남긴 폐허에서 건설을 시작하려는 긍정적인 행동의 열망에서 비롯되었다.¹⁵⁾ 억압된 무의식의 세계를 가능한 한 참되게 표현하려고 하는 초현실주의의 갖가지 시도는 당시의 모순된 현실과 결부되어 예술 일반의 인식을 비약시키고 20세기 특유의 환상 예술을 발흥시키게 된다. 초현실주의는 다다의 표현수단위에 인간의 무의식 세계를 표출해 보이기 위해 자동기술법¹⁶⁾을 도입하는데 이것은 모든 표현을 정신세계의 근본으로 돌이킨다는 특색을 갖고 있다. 즉 합리적인 의식과 자연적 질서를 벗어나 정신의 본질성에 접근하고자 그들만의 독특한 방법을 재창조한 것이고, 조형을 위한 방법에서 무의식, 불가사의, 꿈, 광기, 환각상태를 실제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하면서 작품을 표현한 것이다. 이것은 시대의 특정한 양식이 아니라 인간의 상상력이 계속되는 한 지속되는 정신력의 산물로써, 인간정신에 억압으로 작용하는 모든 것에 대한 거부 현상이다.

초현실주의 그룹 중에서도 가장 풍부한 창의성을 지닌 인물로 막스 에른스트(Max Ernst;1891~1976)를 들 수 있는데 그의 정신은 프로타주 기법¹⁷⁾과 옛 이야기나 과학 서적의 삽화를 오려 붙이는 수법으로 기상천외한 작품을 만듦으로써 초현실적인 콜라주를 확립하였다.<도판7> 일상생활에서 볼 수 없는 이미지를 우연성 있는 이미지로 보이게 함으로써 미술을 초현실화 했다. 그는 이런 프로타주의 작품을 모아 ‘박물지’라는 작품집을 출간하였고 나뭇잎, 풀려진 실, 천 조각 따위도 프로타주에 응용했으며 또한 두껍게 바른 화면을 긁거나 혹은 그것을 거친 표면 위에 올려놓아 찍어내는 기법을 응용했다.¹⁸⁾

1930년대 이후에는 도밍게즈가 개발한 데칼코마니¹⁹⁾를 그림의 주제로 삼아

15) 니코스 스탠고스, <현대미술의 개념>, 문예출판사, 1994, p.190

16) 자동기술법(Atomatisme) ; 모든 습관적 기법이나 고정관념, 이성 등의 영향을 배제하고 무면무상의 상태에서 손이 움직이는 대로 그리는 것을 말한다.

17) 프로타주(Frottage) ; 나무, 돌, 금속 등의 거친 표면에 종이를 대고 연필이나 목탄을 문질러 그 모습을 옮기는 기술이나 표현되는 효과를 말한다.

18) 베르너 슈피스, <막스 에른스트>, 열화당, 1994, p.39

19) 데칼코마니(Decalcomanie) ; 어떤 무늬를 특수종이에 찍어 얇은 막을 이루게 한 뒤 다른 표면에 옮

그렸는데 데칼코마니는 건조하고 메마른 느낌의 프로타주와는 색다른 느낌이 었다. 그는 이후에도 프로타주 기법과 그라타주 기법²⁰⁾을 콜라주, 인도미술, 수채화와 혼합하여 또는 석판화 속에 혼합하여 발전시켰다,

이렇게 에른스트의 회화는 프로타주를 발견한 이후 표현적이며 공상적인 방향으로 작품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곧, 3차원적인 세계를 통하여 비현실적인 세계까지 나타내는 환상적 회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콜라주는 프로타주와의 연결을 통해 회화를 독창적인 분야로 끌어 올렸다는 데에 중요한 가치가 있다.

살바도르 달리(Salvador Dali;1904~1989)는 우연한 이미지를 화면 속에 콜라주 시켜 작가의 상상력과 가공으로 꾸민 세계를 그렸다. 'A Tray of Object' 에서 장난감, 리본 모양의 빵, 석고로 만든 발 등 전혀 이질적인 물건을 한데 집합하여 전시하였는데 이것은 사물의 우연한 조합으로 환치기법²¹⁾을 극대화시켜 표현한 앗상블라주로서 작품 제목과 같이 탁자 위의 음식을 보는 것과 같은 또 다른 연상 작용을 일으키게 된다.²²⁾

5) 팝아트의 콜라주 (1950~1970)

추상 표현주의에 반기를 든 젊은이들이 시각적 매체인 영화 TV, 신문, 잡지를 활용한 콜라주 기법으로 일상 사물의 이미지를 표현하기 시작한 것이 팝아트의 동기가 된다. 팝아트는 순수미술의 반전과 대중적 통속 이미지를 통합시키면서 1960년대 서구 일반사회의 환경을 미술로 수용한 예술 사조로써 부분

기는 전사술의 회화기법으로 종이 위에 그림물감을 바르고 그것을 두 겹으로 접거나 다른 종이를 압착했다가 떼어내면 거기에 색다른 채색상태가 생겨 다양하고 환상적인 효과가 나타난다.

20) 그라타주(Grattage) ; 마찰 또는 긁어 지우기 등을 뜻하는 말로, 먼저 색을 두껍게 칠한 다음, 그 면을 긁어서 독특한 조형적 효과를 내는 방법이다.

21) 환치(Depaysement) ; 본래의 일상적인 질서에서 떼어내어 뜻하지 않은 장소에 놓여져 다른 화면을 구성하는 것으로 일종의 전치법이다,

22) 이진아, <현대미술에 있어서 플라주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경기대 조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p.52

적으로나 전체적으로 오브제를 이미지로서 또는 그 자체 그대로를 사용했다. 다시 말해 도시의 환경으로서 일반적인 소비상품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오브제와 예술과의 접근을 진행했던 것이다.

1950년대 중반에 시작하여 1960년대에 번창한 팝 아트는 특히 사진과 상품 포장 같은 ‘발견된 오브제’ 들로부터 파생된 이미지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콜라주라는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영국 팝 아트의 작가인 리처드 해밀턴(Richard Hamilton;1922~)의 ‘오늘날의 가정을 이토록 색다르고 멋지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도판8>라는 콜라주 작품은 기존의 이미지를 도입해서 쓰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이 작품으로 인해 기존의 이미지 차용을 포함하여 팝아트의 많은 전통이 창조되었다.²³⁾

앤디워홀(Andy Warhol;1928~1987)은 캠벨수프깡통, 코카콜라와 같은 미국의 대량 소비 상품과 인기배우, 유명인등 대중들의 일상과 밀접한 대상으로 작업을 시도하였는데 그는 대량인쇄와 상업적인 목적으로나 사용되던 실크스크린을 작업에 도입하여 미술품을 기계적으로 생산해 냄으로써 대량생산, 소비사회에 걸 맞는 예술형식으로 제시해 보았다.

로버트 라우센버그(Robert Rauschenberg;1925~)는 콜라주의 확대개념으로서의 오브제인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견되는 물체들, 즉, 코카콜라 병, 자동차 타이어, 침대 등을 회화에 적용하는 혼합예술²⁴⁾을 창안함으로써 예술이 일상생활과 관련을 맺고 있음을 보여주려 했다고 볼 수 있다.

제스퍼 존스(Jasper Johns;1930~)는 성조기, 표적, 숫자, 알파벳, 지도 등과 같은 우리에게 친숙한 이미지의 대상을 매우 섬세하고 정밀하게 그림으로써 이미지와 실제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그는 초기의 작품에서 회화와 오브제를 용해시켜 또 다른 리얼리티를 창조했다. 그 외에 로이 리히텐스타인(Roy Lichtenstein;1923~1997)은 격렬한 행동이나

23) E. Lusia-smith, 이열모 역, <현대미술>, 형설출판사, 1985, p.146

24) 혼합예술(Combine art) ; 채색된 화면 위에 붙인 여러 개의 오브제와 결합하도록 한 창작양식이다. 이것은 후에 입체로 된 양식으로 발전되었다. (김춘일, <팝 아트와 현대인>, 열화당, 1979, p.41)

감상적인 연예 따위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 만화를 확대, 복사하여 보편성을 띄는 작업을 하였고, 광고, 간판수법으로 거대한 햄버그, 핫도그를 모조한 올덴버그(Classe Oldenburg;1929~) 등이 있다.

이와 같이 팝아트의 작가들은 하루가 다르게 소비사회가 쏟아내고 있는 많은 양의 이미지들에 관심을 갖으며 그것들을 자신만의 미학적 감각으로 전환시키고 새롭게 구축해 나갔다. 미국의 팝아트의 경우, 입체주의로부터 내려오던 콜라주가 전후를 통하여 앳상블라주 미술로 전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Ⅲ. 콜라주 기법에 의한 창의력 신장과 교육적 효과

1. 콜라주 기법과 창의성의 관계

1) 창의성의 개념

창의성이란 말은 일반적으로 창의력과 독창력, 창조적 재능을 포함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학자들의 연구된 내용을 정리해 보면 창의성이란 과거의 경험이나 지식을 결합하여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이나 성격 그 과정'을 의미하는 말이다. 또한 창의성은 인간의 인성과 능력을 종합한 고도의 복잡한 고등정신 기능으로써 그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되어 왔다.

창의성을 주로 지능의 측면에서 파악하여 지적 능력의 한 특성으로 간주함으로써 창의적 사고를 강조하는 입장으로 Guilford(1975)가 대표적이다. 이 견해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재구성하고 조화시켜 새롭고 독특한 아이디어를 생산하는데 역점을 두기 때문에 인간의 지적능력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다.

인지적 특성으로 보는 견해에서는 창의성의 구성요인을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 재구성 등으로 보고 있다. 유창성이란 가능한 많은 아이디어나 반응들을 생각해 내는 능력이다. 주어진 자극에 대하여 제한된 시간 내에 얼마나 많은 양의 변화를 보일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문제해결력과 창의력에 있어서 우리는 폭넓은 형태로 아이디어를 적용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거나 새로운 종류의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독창성이란 문제 사건에 대하여 일반적인 것에서 탈피하여 독특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산출해 내는 능력이다. 창의적 사고의 이상적인 목표는 사고의 독창성을 추구해 내는 데 있다. 사고에서 독창성이 요구되는 이유는 단기적으로 문제해결의 상황에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문제해결을 할 수 있게 하고 질적으로 고양시켜주는데 있다. 정교성은 다듬어지지 않은 기존의 아이디어를 보다 구체화시켜 정밀한 것으로 발전시키는 사고 능력이다. 창의적인 사고 상황에서는 ‘좋은’이나 ‘실현가능한’등의 평가적인 준거를 처음부터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그러나 독창적인 사고의 나중단계서는 가능한 다양한 측면에서 이미 산출된 많은 양의 아이디어를 최종적인 산출의 형태에 비추어 평가하고 정교하게 다듬는 사고가 필요하다. 재구성은 아이디어를 재정리하고, 대상의 용도와 기능을 변화시키며 새로운 관점으로 대상을 보는 능력이다. 즉 이미 알려진 것을 새롭게 보며 남다른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자질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정의적 특성으로 보는 견해로는 창의성을 하나의 성격 혹은 태도의 일부라고 보는 입장으로 일명 ‘창의적 인성’이라고 불리는데 창의적 성취에 주로 관심을 갖는 정신분석학적 접근과 자아실현에 중점을 둔 심리학과가 주류를 이룬다. 이러한 관점에서 창의성이란 인간의 인성적 특징인 욕구, 동기, 성격, 태도로 보며 창의성을 인간 의지의 산물인 개인의 인성으로 설명하면서 자아실현을 위한 인간의 잠재력을 강조하였다. 창의성의 구성요인을 민감성, 자발성, 독자성, 집착성, 호기심, 개방성 등으로 보고 있다.

또한 문제해결 과정으로 보는 견해에서는 창의성을 어떤 결과에 이르게 되는 창의적인 해결과정에 초점을 맞추면서 방법론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Hormon(1959)은 창의적 과정이란 어떤 새로운 것이 산출되는 과정이며 그 새로운 창조는 반드시 문제해결에 기여해야만 된다고 하였다.²⁵⁾

25) 황지희, 공마리아, <집단 미술활동이 초등학교 아동의 창의성과 학습흥미에 미치는 효과>, 놀이치료 연구 제 7권 1집, 2003, p.107

2) 콜라주 기법과 창의성의 상관관계

다양한 재료와 기법을 활용한 콜라주는 자유로운 사고의 확장, 즉 표현의 자유를 들 수 있다. 이는 창의적인 사고 없이는 나타날 수 없는 것이다. 아동들은 창의성을 구성하는 민감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 등의 요소를 통해서 콜라주 기법의 무한한 표현 가능성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콜라주 기법은 다양한 재료를 여러 가지 기법으로 결합해보고 개선하는 연속의 과정에서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하나의 아름다운 작품이 만들어 진다. 이러한 결합과 연속의 순간이 바로 창조의 과정이며, 창의성의 특징인 것이다.

콜라주 기법의 특성과 창의성의 특성을 간단히 표로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콜라주와 창의성의 특성 비교

콜라주의 특성	창의성의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현의 자유(‘그린다’는 의미의 개념 확장) § 개념의 자유 § 다양한 재료의 사용 § 기상천외한 우연적 효과에서 오는 흥미 유발과 아이디어 산출 § 색채 사용의 고정관념 타파 § 비유적, 연상적, 상징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상력이 높다. § 호기심을 가진다. § 자유분방하다.(고정관념에서 탈피) § 결합과 계속의 연속 § 상이한 요소끼리의 결부에서 오는 효과의 산출 § 수평적 사고 개념 § 연상 작용

위의 두 특성을 토대로 하여 콜라주 기법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였을 때 창의력 신장에 예상되는 기대 효과는 아래와 같다.

손으로만 그린다는 관습적 사고와 관념적 표현개념에서 탈피하는 계기

가 된다. - 자유로운 사고력 향상

대상의 본질을 추구함으로써 인하여 재료의 본질이 더욱 생생하게 나타난다. - 레디메이드의 개념 및 사용에 대한 이해와 적응력 학습

예술에서의 물질성이 강조되어 표현재료의 한계를 극복

콜라주는 일상생활에서 사물을 선택함으로써 생활과 예술의 동일화를 이루게 하였다.

새로운 기법과 조형 이론의 학습으로 현대미술의 이해에 도움

제한된 그림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자유 공간 개념의 창조

예술과 인생(생활)의 통합성 의지²⁶⁾

이와 같이 콜라주 기법의 특성인 다양한 재료의 사용에서 오는 비유적, 연상적, 상징적인 특성과 표현의 자유 등이 아동들의 상상력과 호기심 및 사고의 자유로운 확장을 도모하여 창의성 신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2. 콜라주 표현을 통한 교육적인 효과

1) 수업에 적용 가능한 콜라주 기법

1912년 브라크는 캔버스에다 나무와 대리석의 무늬를 모조한 벽지조각 하나를 붙임으로써 파피에 콜레라는 미술형식을 탄생시키면서 작품에 사물을 이용하기 시작하였다. 20세기에 이르러 다다이즘에 와서는 기계와 과학이 인간에게 가져다 준 전쟁이라는 회의와 절망감으로 부정의 정신이 나타났으며 종래의 예술에서 쓰였던 기법이나 전통적인 재료를 거부하고 개개인의 제멋대로의 방식으로 표현하는 형태를 낳았다. 마르셀 뒤샹은 최초로 레

26) 차경대, <콜라주 기법을 통한 중학생의 창의력 신장 방안>,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1995, p.42

디메이드에 의해 작품을 시도하며 일상용품 그 자체로도 예술작품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주었다. 버스표, 포스터, 신문조각, 못, 종이, 형질조각과 같은 잡다한 물건들을 캔버스에 붙이면서 작업을 하였던 슈비터즈는 이러한 작업을 메르즈라 불렀다. 또한 하우스만은 관계없는 몇 장의 사진을 동일한 화면상에 짜 맞추어 비현실적인 광경을 표현하는 포토몽타주를 시도하였다. 초현실주의에 와서는 상상력이나 환각에 의하여 무의식 속에 표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동기술법, 콜라주, 프로타주, 데칼코마니, 스크래치 기법이 등장하였다. 1960년 초에 프랑스를 중심으로 등장한 전위예술운동인 누보레알리즘에 와서는 공업제품의 단편이나 일상적인 오브제를 거의 그대로 전시함으로써, '현실의 직접적인 제시'라는 새롭고 적극적인 방법을 추구하였고 일상적인 오브제, 생활주변에서 볼 수 있는 폐품같은 예술적 오브제를 수집하여 작품을 제작하는 앓상블라주 계열의 폐품미학을 제시하였다. 대중의 모든 것을 수용해서 작품을 생산하는 팝아트는 TV, 만화, 영화, 신문 따위의 광고, 담배, 콜라, 햄버거 등의 모든 일상적인 사물들을 오브제로 만들어 제작하기도 하고 실크스크린과 같은 기법으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① 콜라주

입체주의의 화가 피카소가 '등의자가 있는 정물'에서 쓴 기법으로서 화면에 실제적 느낌을 도입하기 위하여 성냥, 악보, 트럼프, 신문, 노끈, 인쇄된 종이 등을 복합적으로 화면에 붙이는 것이다. 이는 화면에서 추구했던 입체적 기법과 혼합하여 사용함으로써 풍부한 색감과 질감을 획득할 수 있다. 이것은 분석적 입체주의와 종합적 입체주의의 과도기에 탄생된 현실성의 회복을 노린 기법이었다. 이 기법은 현대 건축의 표면이나 벽화에 많이 도입되며 시각의 촉각예술을 의미하는 적극적인 요철 자국을 준다.

② 파피에 콜레

브라크가 시도했던 방법으로 종이를 화면에 붙여 표현하는 방법이다. 그는 오래된 신문, 악보, 벽지의 단편을 부착하여 실제 물체의 효과를 나타냈다. 이 같은 기성의 물체를 붙이게 되면 화필에 의한 재현 묘사보다 한층 더 분명한 현실감이 생기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필연적인 견고한 화면 구성이 요구된다. 손으로 그려진 부분에서 물체가 떠오르지 않도록 마무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브라크는 “파피에 콜레와 그림으로써 물체와 물체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되찾으려 했다”고 말한 적도 있다.

③ 포토몽타주

포토몽타주는 여러 장의 사진을 적당히 맞춰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것으로 이것 역시 콜라주의 확대에 의한 것이다. 사진을 오려 그 부분을 재조립하여 새로운 의미를 갖는 합성이미지를 만드는 기법으로써, 조각난 사진을 이용하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진에 글씨, 그림, 색을 넣는 것까지도 포함된다. 이것은 다다에서 표출되는 우연의 효과와 무의식적 사진 조립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다다에서 사용한 포토몽타주의 경우, 처음에는 상이한 시각이 대비되도록 화면 구성을 했고 나중에는 이러한 시각이 동시적으로 병치되어 극단적인 시각적 대비를 이루는 작품을 제작하였다. 미술수업에서는 그림이나 사진에서 필요한 영상을 오려 작품 속에서 재구성하거나 손으로 그리기 어려운 부분을 사진으로 대신하여 표현할 수 있다.

④ 앓상블라주

‘집합’, ‘조립’ 등의 뜻으로 평면적인 타블로 회화에서 삼차원성을 부여하는 기법을 말한다. 현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잡다한 물건이나 폐품 따위를 조립해서 작품을 만드는 일이나 또는 그렇게 해서 완성된 작품을 가리킨다. 종이 대신 오브제를 써서 만든 삼차원의 콜라주는 콜라주 조

각을 말한다. 앳상블라주란 말을 처음으로 쓴 것은 뒤뷔페이지만 이러한 시도는 이미 브라크, 피카소, 뒤샹 등에 의해 20C 초부터 사용했던 기법이다.

⑤ 우연 콜라주

아르프는 어느 날 화실에서 그림을 그리다가 그림이 잘 되지 않아 그가 그렸던 데생 종이를 바닥에 뿌리게 된다. 잠시 후 우연히 그는 그가 뿌린 종이를 바라보게 되고 그곳에 우연히 흩어진 종이 조각이 만들어낸 자취를 풀로 붙여 작품으로 완성하였다. 이렇게 하여 제작된 그림이 ‘우연의 법칙에 따라 배치된 사각형들’이란 작품이다. 따라서 그는 이 새로운 콜라주 기법을 ‘우연 콜라주’라고 불렀다. 우연 콜라주의 경우, 가위를 사용하지 않고 찢은 색종이 조각을 우연의 법칙에 의해서 배열시켰는데 제목이 말해 주듯이 큰 종이 위에 작은 종이를 떨어뜨려서 구성하였다. 이 콜라주 기법은 대상이 원래 있었던 본래의 장소에서 떼어내져 다른 환경에 배치되었을 때 발생하는 심리적 효과를 노리는 테페이즈망 원리로 까지 발전하게 된다.

⑥ 자동기술법

어떤 의도를 생각하지 않고 외부의 간섭 없이 무의식적으로 떠오르는 것이나 내면에서 요구하는 상상이나 형태를 붓이 원하는 대로 그리는 것이다. 콜라주에서 자동기술법의 활용은 에른스트가 사용한 프로타주에서 발견된다. 자동기술법은 우리의 정신이나 의식 속에 숨겨진 초현실의 이미지를 볼 수 있도록 해 주는 기법으로서 미술 수업에 사용하면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갖는 수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⑦ 프로타주

이것은 물체를 문질러서 독특한 영상으로 얻는 기법이다. 에른스트가 어떤 물체를 응시했을 때 일어난 환각 증상 속에서 발견한 것으로 자동기술법

이라 불리우는 초현실주의 방법으로 채택되었다. 1926의 에른스트의 <박물지>는 이 수법을 구사한 화첩으로 유명한데, <박물지>에서는 문질러 나타낸 나뭇잎이나 형겅 따위가 인간의 머리, 괴물, 바다의 풍경으로 변모하고 있다. 우리의 무의식을 독특한 재질감을 통해 표현하는데 적당한 기법으로, 회화수업에서는 문질러진 질감을 표현하려는 주제에 맞게 응용하여 표현할 수 있다.

⑧ 테페이즈망

모순되고 대립되는 요소를 한 화면에 결합시키거나 오브제를 엉뚱한 환경에 놓음으로써 시각적 충격이나 신비스러운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방법이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화면에 낯설고 신비스런 신화적 분위기를 형성한다. 두 개의 차원이 하나의 화면에 공존함으로써 3차원 또는 4차원의 깊이를 갖게 된다. 조형상으로 테페이즈망 기법은 선에 의한 원근의 파괴나 눈 속임수, 엉뚱한 화면의 배치, 세부 요소를 확대시켜 포현하는 방법으로 세분될 수 있다. 이러한 원리에 의해 초현실주의자들은 경이와 신비에 가득 찬 꿈속에서만 볼 수 있는 화면을 구성했는데 초현실주의에 의하면 이런 그림이 보는 사람의 마음 속 깊이 잠재해 있는 무의식의 세계를 해방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⑨ 그라타주

에른스트가 발견한 회화 기법으로 유화 물감으로 그림을 그린 후 마르기 전에 칼, 펜, 송곳, 포크, 바늘 등으로 문지르거나 긁어서 영상을 얻는 방법을 말한다. 색의 두께의 변화에 따라서 색, 빛, 그림자 등의 미묘한 시각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 기법은 미술시간에 많이 응용되어 표현될 수 있다. 여러 가지 바탕색을 크레파스로 칠한 뒤 검정색을 비롯한 진한 색을 덧 칠한 다음, 칼이나 날카로운 물건으로 긁어서 바탕색이 보이게 나타내는

것이다.

⑩ 데콜라주

원래, ‘붙인다’는 뜻의 콜라주와 정반대의 개념으로서 ‘떼어 낸다’는 의미이다. 일상적인 사물을 찢어내고 지우고 태우는 등의 행위에 의한 우연의 효과를 노리는 방법이다. 이와 같은 행위를 거듭함으로써 우연성의 창조적 흔적과 사회적인 비평을 찾아내는 것을 의미한다. 콜라주 기법을 이용한 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찢어 내거나 지우고 다시 떼어내어 그 흔적만 남기는 방법을 이용하여 새로운 표현을 할 수 있으며 시간의 흐름을 표현하고자 할 때 사포로 문질러서 오래되고 낡은 느낌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

⑪ 데칼코마니

유리판이나 아트지, 도기 등 비 흡수성 소재에 그림물감을 묻힌 후 그 위에 다른 표면으로 겹치게 하여 물감이 눌러지면서 생기는 효과를 말한다. 1935년 도밍게즈가 최초로 발견하여 무의식과 우연의 효과를 존중하는 비합리적 표현으로서, 이후 에른스트가 사용했으며 무의식의 세계를 탐구했던 초현실주의의 적절한 표현 기법이었다. 아동들은 데칼코마니의 무늬를 보고 여러 가지의 모양을 발견하고 탐구하여 사고력을 기른다. 물감의 농도에 따라 표현 효과가 다르며 자연적인 혼색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신비감과 함께 환상적인 표현을 경험할 수 있다

2) 콜라주 기법의 교육적 효과

콜라주는 아동들이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주변의 여러 가지 재료와 방법으로 탐색하는 활동을 통하여 이제까지의 일반적인 표현방법에 얽매이지 않는 창의적인 표현활동을 체험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아동들은 다양한

기법과 재료를 다루어 봄으로써 물성의 체험을 통한 미적 감각을 더욱 확장시킬 수 있고 그러한 특성을 자신의 작품 속에 활용시켜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콜라주 기법을 수업에 도입해 봄으로써 생기는 교육적인 효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콜라주 속에 나타난 다양한 기법과 재료에 대한 탐색은 탁월한 재능이 없어도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어떤 재료라도 수업에 도입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동들에게 재료에 대한 탐색과 실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종이의 경우에는 찢어보기, 접기, 구부리기, 뭉치기 등이 있고, 다른 재료나 용구를 이용하여 색칠해 보기, 칼이나 송곳으로 긁어 보기, 불에 태워 보기 등 탐색 도중 자기표현에 적합한 표현기법을 발견하여 작품에 응용할 수 있다. 또한 입체와 평면의 전환이나 해체를 통한 조형탐색으로 그린 그림 찢어 재구성하기, 그림에 여러 가지 재료를 붙여 입체표현하기 등 평면, 입체에 구애됨이 없이 자유롭게 탐색하는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둘째, 재료의 선택에 있어서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모든 대상들이 작품의 소재로 선택되고 표현될 수 있다는 의식의 전환을 가질 수 있다. 아름답고 쓸모 있는 물건에서부터 우리들의 생활 주변에서 버려지는 폐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대상들이 조형재료로 활용될 수 있고, 예술의 소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아동들에게 인식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식의 전환으로 아동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물을 좀 더 세밀히 관찰하여 예술적 가치를 지니는 소재를 찾으려고 노력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아동들의 사물에 대한 관찰력이 향상될 수 있다. 예사롭게 지나치던 주변 사물을 객관적으로 보고, 사물에 대한 색채, 모양, 구성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는 것이다.

셋째, 콜라주는 조각으로 자르거나 면을 나눌 수 있고 그것을 움직여서 화면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화면구성 능력을 키우는데 효과적이다. 형태

를 중복시켜 붙일 수도 있고 같은 형태의 그림이라도 붙이는 기법에 따라 변화 있고ダイナミック한 구성이 가능하다. 화면구성과 더불어 콘트라스트²⁷⁾, 리듬²⁸⁾, 색가²⁹⁾, 색상배합 등을 배우는데도 효과적인 기법이다.³⁰⁾

넷째,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묘사가 부족한 아동들이 실제 사진이나 실물 매체를 이용하여 작품을 제작해 봄으로써 미술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특히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사실적인 묘사와 표현이 강해지는 시기인 만큼 그림 실력에 자신감이 없는 아동들은 미술에 흥미를 잃기 마련이다. 아동들은 다양한 기법으로 새로운 형태를 만들어 내고 변형함으로써 미술에 대한 흥미를 갖고 보람 있는 미술수업을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다양한 콜라주를 활용한 표현은 자기표현, 자기완성을 통해 창의력을 계발시킬 수 있으며 다양한 조형적 경험은 창조성과 감성이 풍부한 개성적 인간을 육성한다. 즉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동의 감정과 사고력, 창의력을 함께 길러주어야 하는 초등미술 수업활동으로써 콜라주를 활용한 수업은 효과적이다.

27) 콘트라스트 ; 대비나 대조를 하면 강조되고 변화하여 강렬하고 자극적인 효과를 준다. 미술작품에서 주제, 색채, 구도 등에 대비 효과를 많이 주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가 사용되는 용어이다.

28) 리듬 ; 색상의 흐름을 뜻하는데 음악에서도 리듬이 있듯이 미술에서도 리듬이 중요시 된다.

29) 색가 ; 한 색이 다른 색과 비교되었을 때 시각적인 강도를 뜻하는 용어이다.

30) F. 위야르 -르투르네르, <지능과 창의력이 풍부해지는 콜라주 놀이>, 도서출판 종이나라, 2005, p.5

IV. 미술교육에 있어서 콜라주 기법의 활용

1. 초등학교 콜라주 수업의 활용 실태

1) 제 7차 미술 교육과정 분석

미술교과 교육은 다양한 미술활동을 통하여 주변 세계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향유할 수 있는 심미적인 태도와 상상력, 창의성, 비판적인 사고를 길러주고 아울러 미술문화를 이해하고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인적 인간을 육성하는데 있다.

제 7차 미술과 교육 과정은 미적체험, 표현, 감상을 목표로 아동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계발하고 미적 감수성을 신장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표현영역에서는 본 것, 느낀 것, 상상한 것, 모양과 쓸모를 생각한 것, 환경에 필요한 것 등의 주제를 평면이나 입체로 표현하는 방법을 탐색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 형, 색, 질감, 동세, 명암, 양감, 공간 등의 조형요소와 원리에 중점을 두어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재료와 용구는 주제를 나타내기 위한 방법 등과 연계하여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교사가 학생들에게 단원에 적절한 재료를 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표 2> 제 7차 미술 교육과정 분석³¹⁾

학년	단원	제재	참고작품 제목	재료, 용구	지도내용
1-2	6. 똑 같 아 요	색종이접 어대칭구 성하기		색 종 이 , 가 위 , 풀 , 양 면 색상지	-같은 모양으로 여러 개 접어서 대칭으로 구성하기

31) 이은실, <콜라주 기법을 통한 표현능력 신장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14-23

학년	단원	재재	참고작품 제목	재료, 용구	지도내용
1-2	6. 똑 같아 요	색종이를 접어서 대칭모양 으로 구 성하기		색종이, 가 위, 풀, 양면 색상지	-재미있는 모양이 되도록 서로 의논하면서 붙이기 붙여진 모양에서 부분적으로 더 꾸밀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여 표현 재시도하기
		오린 대 칭 모 양을 색 종이에 붙여 꾸미 기		색종이, 가 위, 풀, 양면 색상지	참고 작품을 감상하며 표현방법 생각하기 방법을 알고 표현하기 색종이를 반으로 접어 나타내고 싶은 모양을 따라 정확하게 오리 기 -바탕 종지와 대칭 모양의 중심 을 맞추어 붙여 완성하기 친구들의 작품을 보고 좋은 점 이야기하기
	7. 정 다 운 이 웃	연하장과 카드를 아름답게 꾸며보기		색지, 색종 이, 물감, 풀, 가위, 사인펜 등	색도화지를 바탕으로 하여 연하 장카드의 모양 만들기 -색도화지에 예쁜 모양을 그려서 오려내기 -색종이를 오리거나 접어서 겹면 에 붙이기 -인사말을 간단히 써 넣기
2-1	4. 찾 아 보 세 요	여러 가 지 모 양 으로 재 미있 게 만 들 어 보 기		잡지, 콩, 털 실, 큐빅, 보 리, 쌀, 접착 제, 형깁, 사 인펜, 셀로판 테이프 등	이미지를 단순화시켜 주제가 뚜 렷하게 밑그림을 그리기 질감이 다른 여러 가지 종이, 형깁, 망사, 실, 곡물, 병뚜껑 등 다양한 재료를 모양에 어울리게 붙이기 사인펜 등으로 세부를 재미있게 덧그려 완성하기 (재료에 알맞은 접착제 준비) -사진을 잘라 일정한 간격으로 붙이기 -포토몽타주 기법으로 나타내기 바탕종지는 재료의 무게를 생각 하여 하드보드지나 상자 종이를 이용하는 것이 좋음

학년	단원	재재	참고작품 제목	재료, 용구	지도내용
2-1	5. 이 만 큼 자 랐 어여	그림자를 이용하여 나타내기		사인펜,크레 파스, 마커 펜, 색한지, 신문지, 잡 지, 가위,풀, 파스텔등	그림자의 면 구성하기 -자기가 맡은 화지의 그림자 모 양을 생각하면서 어떤 재료와 기 법으로 표현할 것인지 생각하여 구상한다. -크레파스, 색연필, 파스텔, 수채 물감으로 칠하기, 색한지, 잡지 찢어 붙이기 -색이 조화로운지 확인하기 -완성된 그림 이어 붙이기
	1 1 . 신 나 는 물 놀이	바 닷 속 풍 경 을 표 현 하 기		색 종 이 , 망 사 , 형 겹 , 물 감 , 털 실 , 접 착 제 , 사 인 펜 , 크레 파스	바닷속 풍경이나 식물그리기 은박지,옷감,플라스틱재료,망사, 콜판지 등을 준비하기 준비된 재료를 밑그림에 맞게 오려붙이기 비닐에 아크릴물감으로 그린 후 오려 붙이기 크레파스로 문질러 표현하기
2-2	2. 열 차 여 행	여러 가 지 모양 으로 재 미 있 게 만 들 어 보 기		잡 지 , 풀 , 사 인펜, 색연필	구상한 열차모습 스케치하기 계획에 따라 각자 종이를 붙이 거나 채색하여 완성하기 작품을 감상하여 재미있게 표현 된 부분 이야기하기
	4. 즐 놀 이	선 으 로 여러 가 지 모양 나타내기		고무찰흙,두 꺼운 도화 지 등	밑그림 그리기 -음악을 들으면서 연필로 두꺼운 도화지에 느낌 나타내기 -그림을 보며 찰흙을 길게 밀어 서 선을 따라 붙이기
	6. 가 을 풍 경	나뭇잎으 로 재미 있게 꾸 며보 기	가을풍경 나타내기	각종 나뭇 잎, 색한지, 풀, 색도화 지, 크레 파 스, 물감, 풀, 양면테이프, 사인펜	나뭇잎으로 꾸미기에 알맞은 주 제 정하기 밑그림을 그린 후 나뭇잎 모양 과 색을 적절히 이용하기 -특징적인 부분 강조하기 -다양한 종류의 나뭇잎 이용하기 알맞은 모양으로 붙이기

학년	단원	재재	참고작품 제목	재료, 용구	지도내용
2-2	6. 가을 풍경	"	"	"	-접치고 구부리고 잘라내어 특징이 잘 표현되도록 붙이기 -크레파스나 사인펜, 물감으로 세밀한 부분이나 주변모습 그리기
	8. 우리들 자랑	재미있는 안내장 만들기 작품 감상하기		색지, 색종이, 사인펜, 풀, 가위 등 색한지, 골판지, 망, 단추, 형겔, 사포, 호일, 털실	안내장의 디자인 생각하기 -안내장 무늬나 그림 나타내기 -안내장에 필요한 글씨쓰기 작품감상하기 -감상지에 표현 의도와 새롭게 알게 된 점, 보완내용 등을 쓰기 -주제의 내용이나 표현방법, 재료, 느낀 점을 쓰기 -작품을 감상하여 재미있게 표현된 부분 이야기 해 보기
3	1. 자연의 아름다움	자연의 아름다움 표현하기 자연 표현한 작품 감상하기	산과 나무와 물고기 산	골판지, 색지, 크레파스, 가위, 풀 등 색종이, 풀, 색지, 크레파스 등	표현주제 정하기 표현계획세우기 -표현재료와 방법 정하기 여러 가지 선과 형으로 표현하기 자신의 표현의도를 발표하기 작품의 제작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작품에 나타난 선과 형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야기하기 재미있게 표현된 부분 이야기하기
	4. 줄놀이	선으로 여러 가지 모양 나타내기	봄 햇살	화선지, 색한지, 물감, 사인펜	자기 작품의 표현의도 말해 보기 어떤 색을 주로 사용하여 느낌을 표현했는지 이야기하기
	6. 가을 풍경	나뭇잎으로 재미있게 꾸며보기	개구쟁이	천 테이프, 골판지, 사인펜, 색종이, 물감	꾸밀 문자 구성하기 스케치하기 여러 가지 재료와 방법을 활용하여 꾸미기

학년	단원	재재	참고작품 제목	재료, 용구	지도내용
3	9. 문자와 초대	문자 꾸미기	자연보호	컴퓨터 글씨, 잡지, 사인펜	(그림으로 그리기, 색종이 오려 붙이기, 컴퓨터 글씨체 뽑아서 장식하기, 여러 가지 재료를 붙여서 꾸미기)
			행복	색한지, 색종이, 포장지	
		초대장 꾸미기	초대장	색상지, 색종이, 골판지, 사인펜, 물감	초대장 모양 정하기 표현방법을 생각하기 -색칠은 손쉽게 할 수 있는 사인펜이나 색연필을 사용 -자연물(나뭇잎), 색종이 등을 올려 붙이는 방법, 물감을 뿌려서 효과를 내는 방법, 종이를 자르거나 접어 반입체적으로 꾸미는 방법, 컴퓨터를 활용
		서로의 작품 감상하기	초대장	색종이, 색상지, 골판지, 실, 색한지, 사인펜 등	
			희망	색종이, 사인펜, 풀	
4	1. 자연의 색	자연물을 주제로 표현하기	봄 풍경	색종이, 수채물감, 풀, 수채용구 등	계절의 특징이 나타나게 표현하기 다양한 재료와 방법을 사용하여 표현하기 계절의 느낌이 나타났는지 살펴보고 수정하여 완성하기
		서로의 작품 감상하기	겨울 풍경	수채물감, 신문지, 풀 등	자신의 작품 발표하기 서로의 작품 감상하기 -작품에서 표현의 특징을 찾아보고 이야기해보기
	2. 움직이는 선과 형태	움직임 표현하기	운동회	색도화지, 가위, 풀 등	평면으로 움직임 표현하기 인체모형을 보며 관절의 움직임 찾기 기본형을 만들어 움직임이 있는 사람을 만들어서 평면에 구성하기

학년	단원	재재	참고작품 제목	재료, 용구	지도내용
4	2. 움직임은 선과 형태	서로의 작품 감상하기	체조하는 모습	색도화지, 등근핀, 가위 등	작품에 표현된 형을 찾기 움직임이 잘 표현된 작품을 보며 이야기하기 작품을 제작할 때 새롭게 시도된 점, 배운 점, 보완할 점에 대하여 이야기하기
	3. 상상의 세계	상상의 세계 표현하기	사람보다 커진 강아지	모래, 수채물감, 신문지, 스프레이, 래커, 모루	상상의 세계를 평면으로 표현하기 -주제 정하기 -주제에 맞는 표현방법 정하기 -상상의 주제를 스케치하기 -주제와 재료의 특징을 살려 표현하기 -작품을 감상하여 재미있게 표현도 부분을 찾아 이야기하기
			바다에서 바라본 풍경	수채물감, 한지, 면사, 모루, 모래 등	
			이야기 속에서	신문지, 물감, 색종이, 콩, 끈	
	4. 색의 느낌	비슷한 색과 반대색 알아보기	왕의 슬픔	색종이, 풀, 가위, 등	참고작품을 보면서 비슷한 색과 반대색의 차이점을 이야기하기 전체적으로 어떤 주제와 느낌으로 표현한 것인가? -어떤 색으로 배색하여 표현한 것인가? 원고 작품을 살펴보고 비슷한 색과 반대색으로 표현된 곳 찾아 이야기하기
		여러가지 모양 꾸미기	비슷한 색과 반대색으로 꾸며보기	색종이, 풀, 가위, 포스터, 물감 등	같은 모양으로 배색에 따라 달라지는 느낌에 관하여 이야기하기 표현할 느낌에 어울리는 무늬 정하기 밀그림 그리기 비슷한 색과 반대색으로 꾸미기

학년	단원	재재	참고작품 제목	재료, 용구	지도내용
4	4. 색 의 느 낌	느 낌 을 강조하여 나타내기	가을노래	도 화 지, 사 진, 색 종 이, 물감, 풀 등	느낌을 강조하여 경험이나 생각 한 것을 발표하기 느낌에 어울리는 주조색 정하기 느낌을 강조하여 밀그림 그리기 느낌이 알맞은 방법으로 표현하 기
			야호!	신 문 지, 잡 지, 색 종 이, 풀, 도 화 지 등	-사진이나 그림 위에 덧칠하기 알맞은 재료와 표현방법을 이용 하기
	8. 재 미 있 는 표 현	여러 가 지 재 료와 방 법 으 로 표 현 하 기	젓소	신 문 지, 잡 지, 색 종 이, 풀, 도 화 지 등	도화지에 주제를 스케치하기 색종이, 잡지, 신문지 등을 이용 해서 어울리는 색 부분을 찢어내 기
			여름바다	빨대, 조개껍 데기, 수수 깻, 나무가 지, 색 종 이, 한 지, 사 인 펜, 접착제	-크게 찢어 붙이거나 작게 찢어 붙이기 스케치한 곳에 어울리게 붙이기
	11. 마 크 와 표 지 판	표 지 판 꾸미기	표지판	우드락, 지점 토, 셀로 판 지, 모래, 자 갈, 접착제, 한지	꾸밀 내용과 모양을 스케치하기 가장 좋은 모양을 선택하고 단 순화 시켜서 꾸미기
		서 로 의 작 품 감 상 하 기	여러 가 지 마 크	색 종 이, 색 지, 풀, 가 위 등	완성된 작품을 서로 감상하며 이야기하기 -독창적이며 배색이 아름다운가? -목적에 맞게 제작되었는가? -알리고자 하는 내용을 단순 명 료하게 잘 표현하였는가?
5	1. 색 의 변 화	색의 변 화를 표 현하 기	도시풍경	색종이, 가위 , 풀, 등	흰 잡지나 색종이를 이용하여 표현하기 -주제를 정해 밀그림 그리기 -종이를 오리거나 찢어 붙이기

학년	단원	재재	참고작품 제목	재료, 용구	지도내용
5	1. 색의 변화	서로의 작품 감상하기	나무	색지, 잡지, 풀, 가위 등	완성된 작품을 보고 색의 변화에 관하여 이야기하기 표현 의도와 방법에 관하여 이야기하기 특징적인 표현을 찾아 이야기하기
			구성	색종이, 색지, 가위, 풀 등	
	4. 이야기 세상	이야기 표현하기	말하는 감자 이야기	색종이, 잡지, 크레파스, 풀	표현할 이야기의 내용 정하기 정면에 알맞은 표현재료 및 방법을 정하여 표현하기 -배경을 꾸미고 OHP필름에 장면 그림 그리기 완성된 그림으로 이야기 꾸미기
			혹부리 영감이야기	색종이, 짚, 수수깡, 수수, 접착제, 컬러믹스 등	
			풍선이야기	색한지, 유성펜, OHP 필름, 수채물감 등	
7. 새로운 공간	주변의 공간 꾸미기	타일꾸미기, 벽면꾸미기	색종이, 색한지, 풀, 가위 등	꾸밀 공간을 생각하면서 밑그림 따라 부분품 만들기 전체적인 조화를 생각하면서 부분품을 수정하기 전체를 구성해서 완성하기	
	서로의 작품 감상하기	벽면꾸미기	골판지, 포스터물감, 아크릴물감 등	표현주제 정하기 그리기, 색종이, 색지 등 여러 가지 재료와 표현방법으로 꾸미기	
9. 아름다운 포장	포장지와 용지 만들기	여러 가지 포장지	색종이, 색한지, 꽃모양도장, 가위, 풀 등	꾸밀 무늬 생각하기 꾸미는 방법을 정하고 꾸미기 -색종이나 색한지를 오려 붙이기 -물감이나 사인펜 등으로 무늬를 그리기 꾸민 포장지로 물건을 포장해보기	

학년	단원	재재	참고작품 제목	재료, 용구	지도내용
6	1. 상 상 표 현	상 상 한 것을 표 현하기	살아 움직이는 물건들	사포, 수채용 구, 크레 파 스, 색사 인 펜, 색연필, 잡지, 풀, 가 위	상상한 것을 평면으로 표현하기 -참고작품을 보며 주제, 재료, 기법에 대하여 알아보기 -표현주제 정하기 -표현할 내용 구상하기 -한 가지 이상의 방법을 사용하 여 표현하기
			환상여행	포스터물감, 호일, 접착제 등	
			상상의 동물	단추, 은 박 지, 골판지, 접착제, 색종 이 등	
		상상표현	미래의 컴퓨터	하드보드지, 피복 전선, 칩, 채색용구	서로의 작품 감상하기 -어떤 주제를 표현하였는가? -표현의 특징은 무엇인가? -어떤 느낌이 드는가? 감상내용 기록하기 -기록한 후 서로 발표하고 토론 하기
	3. 다 양 한 표현	다 양 한 표현 법에 하여 아보기	등근 탁자	벽지, 유채물 감, 접착제, 등	참고작품을 보면서 주제를 나타 내는 여러 가지 방법에 관하여 이야 하기 -대상을 단순화하여 다시 배치한 작품의 느낌에 관하여 이야기하 기
			여러가지 방법으로 표현하기	낮과 밤	하드보드지, 색한지, 털 실, 접착제, 물감 등
서 로 의 작품 감 상하기			리듬	색한지, 풀, 가위 등	자신의 작품을 보면서 수채화 표현방법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표현방법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 하기

	단원	제재	참고작품 제목	재료, 용구	지도내용
6	9. 알리는 것 꾸미기	알리는 것 꾸미기	학급 글 모음집, 학급신문 환경신문	색종이, 핑킹 가위, 골판지, 색지, 채색 용구, 가위, 풀 등	우리 가족이나 학급을 소개하는 신문을 꾸며보기 -모둠별로 꾸밀 내용을 정하기 -글을 쓰고 사진을 붙이거나 그림을 그려서 꾸미기 -전체 면을 정리하여 완성하기
			관광 포스터	색한지, 포스 터물감, 풀, 가위 등	제작할 포스터 구상하기 구상한 내용 스케치하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채색하거나 꾸며 완성하기
			계몽 포스터	잡지, 풀, 종 이, 끈, 도화 지, 사진	
	행사 포스터	색지, 골판 지, 색종이, 풀 등			
		서로의 작품 감 상하기	읽기 모음집	색한지, 색종 이, 풀, 가위 등	서로의 작품에서 알리는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특징적인 표현에 관하여 이야기 하기

2) 콜라주 지도내용의 분석과 문제점

① 저학년 (1,2학년)

저학년 아동들이 주로 사용하는 주재료는 크레용이나 크레파스가 있는데 이

들 재료의 특성은 선묘의 적절한 표현에 있다. 이 시기에는 아동들이 다루기 힘들거나 통제된 재료의 사용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매체 탐색’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어야 한다.³²⁾ 매체탐구의 재료로써 색종이는 저학년이 쉽게 다루어 볼 수 있는 기본재료 중에 하나이다.

1학년 즐거운 생활에서는 색종이를 접거나 오려서 배색과 대칭을 경험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그것을 색도화지에 꾸며보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콜라주 수업의 다양한 재료적 접근에 있어서 많은 재료를 활용하여 표현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색종이를 활용한 수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2학년은 1학년에서 다루었던 색종이와 색도화지 뿐만 아니라 질감이 다른 물체 즉, 형겔, 망사, 털실, 곡물, 병뚜껑 등 다양한 재료를 모양에 어울리게 붙여서 화면을 구성해 보는 수업이 나오기 시작한다. 또한 자연재료인 다양한 나뭇잎과 프로타주 기법으로 표현된 나뭇잎 등을 이용하여 동물이나 식물을 표현해 보고, 주제 면에서도 바다 속 풍경, 여러 가지 열차 모양 등 형상이 나타나는 표현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준비된 다양한 재료들을 이미지에 어울리게 겹치고 구부리고 잘라서 특징이 잘 표현되도록 하고, 붙여진 재료와 함께 사인펜이나 물감 등으로 세부를 재미있게 그려서 완성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작품 감상에서도 색한지, 호일, 골판지, 단추, 망사, 사포, 형겔들을 활용한 콜라주 작품이 예시되어 있어서 저학년들도 서서히 콜라주 표현기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중학년 (3 4학년)

3학년은 1단원 자연의 아름다움과 3단원 여러 가지 색에서 색종이, 화선지, 색한지의 종이재료를 활용한 수업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9단원 문자와 초대장에서는 색연필과 사인펜을 이용하여 그림 그리기, 자연물(마른 꽃잎

32) 현광덕, <초등 저학년의 미술교육론>, 미술교육논총 2집, 한국미술교육학회, 1993, p81-82

과 나뭇잎)과 색종이 등 재료를 붙여서 꾸미기, 종이를 자르거나 반입체적으로 표현하기, 컴퓨터 글씨체를 뽑아서 장식하기 등이 지도된다.

그러나 3학년은 콜라주 기법을 활용한 참고 작품의 수가 많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재료적인 면에서도 종이재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아동들이 다양한 재료의 경험과 표현에 있어서 저학년의 경우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

4학년에서는 비교적 콜라주 기법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1단원 자연의 색에서는 자연을 주제로 계절의 특징이 잘 나타나도록 색종이를 붙인 후 물감으로 채색하여 표현하기가 있다. 이 수업에서는 풍경이나 사물을 똑같이 그린다기 보다는 그 느낌을 살려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색종이를 찢어 붙이면서 모자이크의 기법을 사용하였다. 3단원 상상의 세계와 8단원 재미있는 표현에서는 여러 가지 특성을 살려 표현하기, 색종이, 잡지, 신문지 등을 이용해서 어울리는 색을 찢어내어 표현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붙이는 방법에 있어서는 평평하게 붙이는 것이 아니라 신문지를 말아서 붙인다거나 구겨진 느낌이 들도록 붙임으로써 화면에 입체감을 표현해 볼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

또 4단원 색의 느낌에서는 색을 강조하여 경험이나 생각한 것을 나타내는데 사진이나 그림, 색종이를 오려 붙이고, 알맞은 채색도구로 덧칠하는 등의 방법이 소개된다. 사진을 붙여봄으로써 표현하고자 하는 부분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 시기의 아동들은 새롭고 익숙하지 않은 재료도 사용해 보고자하며 다양한 물건을 수집하는데도 흥미를 갖는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아동들에게 재료의 가능성을 넓혀주고 그에 따른 다양하고 차별적인 새로운 표현방법이 소개된다면 더 좋을 것이다.

③ 고학년 (5 6학년)

5학년 1단원 색의 변화에서는 색종이나 흰 잡지를 이용하여 오리거나 찢

어 붙임으로써 색의 변화를 느낄 수 있게 구성되어 있으며 4학년 이야기 세상에서는 이야기의 장면을 표현하는데 짚, 수수, 컬러 믹스 등 새로운 재료를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7단원과 9단에서는 벽면꾸미기와 포장지 꾸미기의 내용 속에 콜라주의 요소가 자연스럽게 혼합되어 구성된 것을 볼 수 있다. 셀로판지, 색한지 등으로 제한하지 않고 여러 재료를 활용해 보고 표현방법에 있어서도 색종이나 색한지를 겹쳐 놓고 똑같은 무늬를 오리거나 간단하게 접어서 효과적으로 표현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기도 한다. 5학년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콜라주의 표현 영역을 벽화꾸미기로 확대했다는 것이다.

6학년은 1학년 상상표현에서 사포, 호일, 단추, 은박지, 골판지, 색연필, 잡지, 색 사인펜 등 다양한 재료와 기법을 이용하여 주제를 표현하고 있다. 바탕재료를 매끄러운 종이가 아닌 사포를 사용함으로써 바탕재질에 따라서 새로운 느낌과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3학년 다양한 표현에서는 주제의 느낌을 잘 살릴 수 있는 표현 방법을 탐색, 시도하게끔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끝으로 9학년 알리는 것 꾸미기에서는 여러 가지 신문이나 포스터를 제작하는데 있어서도 단순한 채색에 머무르지 않고 콜라주 기법을 이용하고 있어 표현의 독창성을 경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고학년 콜라주 수업은 저학년과 중학년 수업에서 보이는 것과 크게 다른 것이 없으며, 다양한 재료와 기법의 표현이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종이재료를 활용한 기법은 거의 모든 학년에서 제시되고 있는데 고학년의 수업인 만큼 참고 작품의 수준을 높여 아동들의 작품 제작에 흥미를 불러 일으켜야 할 것이다.

학년별로 콜라주 수업 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전체적으로 교과서의 내용이 지루하고 1학년에서부터 6학년까지의 재료의 범위가 그다지 넓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수업방식 역시 학년별로 큰 차이가 없어 보여 다양하고 적극적인 콜라주 수업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교사들은 콜라주 수업에 대

한 충분한 이해와 재료의 무한한 표현가능성을 인식하고 이것을 아동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재료를 통한 콜라주 기법의 응용 방안

붓과 캔버스 대신 실제의 물질을 사용하여 덧붙이는 콜라주 표현 기법은 넓은 의미에서 현대 미술의 재료와 표현기법을 확장시키고, 회화에 대한 기본적인 가치관이 크게 변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콜라주 표현 기법과 재료 사용의 다양한 경험은 그 자체로 아동들에게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된다. 이것은 물질이나 매개물을 활용하여 자신의 체험이나 생각을 표현해 내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경험을 풍부하게 하는 것은 미술 표현 활동에서 기초적인 일이다. 다양한 재료의 사용은 아동들에게 호기심과 욕구를 유발시키고 감수성을 강화하면서 재료의 물질적, 감성적 체험을 통해 표현하려는 이미지를 적합한 시각구조로 변형시켜 전달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미술교육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개성적이고 창조적인 표현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표현학습은 재료의 선택에서부터 표현기법의 발견에까지 더욱 중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재료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표현의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재료의 표현 가능성’을 자유롭게 확대시켜 나가는 미술표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³³⁾

교사들은 주제에 맞는 동기 유발과 함께 적합한 표현기법과 재료의 선택으로 지도방법을 다양하게 변화시켜 어린이들의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표현 방법의 가능성을 열어 주어야 할 것이다. 어린이 미술교육에 있어 재료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어린이들의 조형 활동 대부분은 흥미와 욕구를 중심으로 재료를 통해 그

33) 김삼량, <미술교육론>, 미진사, 1992, p.148

들의 풍부한 상상력을 재구성하는 경험을 함으로써 자신들의 생각을 새롭게 표현하고 그러한 경험을 통해 호기심과 욕구를 유발시키고 감수성을 강화시킨다. 또한 표현을 위해 재료를 물질적, 감성적 체험을 거치게 되므로 어린이의 물질적, 감성적 체험으로써 의미를 갖으며 어린이의 아이디어, 이미지를 적합한 시각구도로 변형시킨다. 마지막으로 재료를 통하여 자신의 의도를 전달하는 형태를 이루게 된다.³⁴⁾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재료의 탐색을 통한 시도와 발견은 어린이가 재료의 지배 능력을 스스로 깨함으로 인하여 그 표현에 있어서도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태도로 표현할 수 있게 한다. 어린이에게 있어 미술재료는 결과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재료를 알기 위하여 스스로 구성할 수 있는 발견요소를 포함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어린이의 재료는 다양하게 제시되어 어린이가 자발적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선택으로 인한 활동은 자유롭고 여유로워야 한다.

콜라주 재료는 다양한 탐색적 특성들이 내포되어 있다. 예를 들면 빌로드 천이 갖는 부드러움, 모래종이가 갖는 까끌까끌한 느낌, 유리의 면이 갖는 매끄러움 등은 아동에게 촉각적, 시각적, 탐색적 기제를 발동시킨다. 콜라주의 표현재료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어떠한 대상이라도 소재로 등장시킬 수 있다. 아름다운 것 뿐 아니라,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고 버리는 일상용품도 재활용하여 예술의 표현재료로 쓸 수 있고, 미술시간에 다룰 수 있는 표현재료가 되는 것이다. 콜라주는 주변에 있는 모든 것에서 가져온 것을 바탕으로 하여 그것을 변형하고 창조적 이미지를 만들어 낸다. 즉 그것은 정형화된 예술형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할 수 있고 창조의 기쁨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원천이 된다.

34) 한국초등미술교육학회, <초등 미술과 교육학>, 교육과학사, 1997, p.327

<표 3> 콜라주 재료 분류

자연재료	자연재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토막, 나무껍질, 나무뿌리, 짚, 갈대, 싸리, 콩, 칩덩굴, 곡식, 씨앗, 왕겨, 솔잎, 솔방울, 열매, 달걀껍질, 조개껍질
	석재	돌, 모래, 바둑알, 조약돌, 샌드페이퍼
인공재료	합성류	양초, 지우개, 스펀지, 스티로폼 공, 우드락, 아크릴판
	종이	색종이, 켈트지, 파스텔지, 한지, 화선지, 창호지, 닥지, 두꺼운 종이, 신문지, 잡지, 장판지, 골판지, 휴지, 은박지, 각종 포장지, 벽지, 금종이, 은종이, 달력, 주름지, 트레이싱페이퍼, 접착용 시트지, 소포지, 컴퓨터 용지
	섬유	형짚, 노끈, 실, 털실, 레이스, 솜, 망사, 스타킹, 모루
	철재	철사, 철 조각, 철판, 구리판, 아연판, 압핀, 머리핀, 핀, 클립, 못, 깡통, 구리선, 피복전선
	목재	나무젓가락, 성냥개비, 이쑤시개, 톱밥, 베니어합판, 아이스크림 막대기
	소성류	지점토, 칼라믹스, 종이찰흙, 파라핀
기타재료	호일, 필름, 단추, 구슬, 병뚜껑, 비닐, 깃털, 고무줄, 수수깥, 빨대 등	

콜라주 수업의 표현에 있어 재료를 활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주어진 주제의 내용에 적합한 재료를 아동들이 선택하여 표현하는 방법과 아동들이 여러 가지 재료를 선정, 수집한 후 재료적 특질에 적합한 이미지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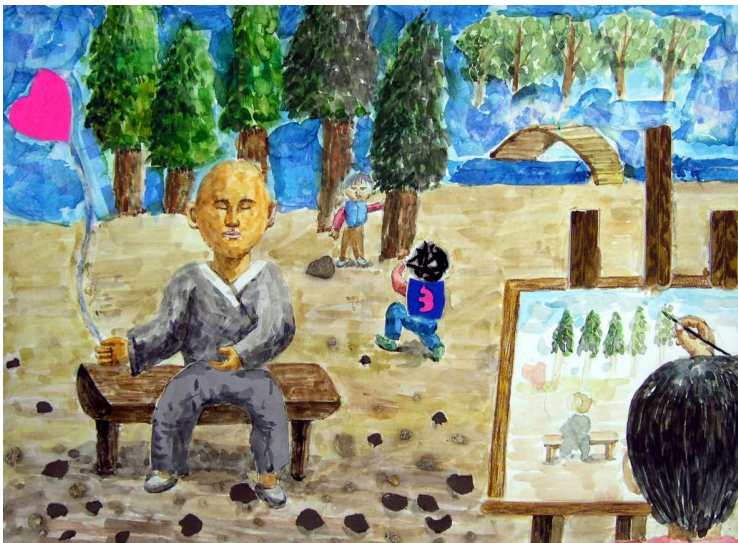
전자의 경우 재료의 선택을 자유롭게 하도록 하여 주제에 대한 재료 표현의 가능성을 넓혀 주는 것이 중요하며, 후자의 경우에는 좀 더 다채롭고 독창적인 주제표현을 유도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표현학습을 통하여 아동은 미술표현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갖게 되고 표현 수준 또한 창의적으로 향상될 것이다.

① 주어진 주제에 맞게 여러 가지 재료를 붙여 부착하는 경우

<자신이 미래에 하고 싶은 일을 표현해 보기>

학습 목표

- 미래에 가장 하고 싶은 일이나 이루고 싶은 꿈을 상황으로 표현한다.
- 주변의 모든 재료가 작품에 활용될 수 있으며 적절한 재료의 표현으로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다.



<그림 1> 정지호, 화가가 되고 싶어요, 2005, 종이에 아이스크림 막대기, 색지, 티슈, 부직포, 자갈 콜라주, 수채물감, 54×39cm

<그림 1>에 표현된 재료는 아이스크림 막대기, 색지, 티슈, 부직포, 자갈, 수채물감이다. 이 그림은 초등학교 6학년 아동의 작품으로 미래에 화가가 되는 것이 꿈인 자신의 모습을 표현해 보았다. 공원에 있는 사람들의 표정과 자연의 아름다운 모습을 화폭에 담아내려는 상황을 잘 포착하였다. 그림을 그리고 있는 이젤은 먹고 난 아이스크림 막대기를 재활용하여 나무이젤의 느낌을 표현하였다. 사람들의 옷은 부직포와 색지를 이용하여 변화를 주었다. 또한 화면 앞쪽으로 실제 자갈을 붙여주어 생동감 있게 표현하였다. 하늘과 물은 파란색 티슈를 구겨서 표현하였는데 약간 도드라지게 붙여진 부분으로 인하여 재질감을 느낄 수 있다.



<그림 2> 이주연, 천문학자를 꿈꾸며, 2005, 종이에 색종이, 털실, 부직포, 잡지, 이쑤시개 콜라주, 수채물감, 54×39cm

<그림 2>에 표현된 재료는 색종이, 털실, 부직포, 잡지, 이쑤시개, 수채물감이다. 이 그림은 초등학교 5학년 아동의 작품으로 훌륭한 천문학자가 되고 싶은 자신의 꿈을 표현한 것이다.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달은 색종이를

이용해서 모자이크 기법으로 표현해 보았고, 앞에 있는 풀은 잡지를 찢어서 자연스럽게 붙여주었다. 그림을 그린 주인공이기도 한 인물의 옷은 부직포를 활용해서 붙여 보았고, 언덕 저 편에 있는 작은 통나무집은 수채화로 입체감 있게 칠해 준 다음 이쑤시개를 잘라서 표현해 주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은 달을 모자이크 기법으로 표현해 줄 때 같은 노란색만 붙이기보다는 유사한 색상을 같이 붙여서 변화를 주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림 3> 김세화, 미술선생님, 2005, 종이에 부직포, 천, 레이스, 잡지, 사진, 압정 콜라주, 수채물감, 54×39cm

<그림 3>에 표현된 재료는 부직포, 천, 레이스, 잡지, 사진, 압정, 수채물감이다. 이 그림은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의 작품으로 미래에 그림을 가르치는 미술선생님이 되고 싶은 소망을 표현해 주었다. 아기자기한 실기실 풍경을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나타내 보았는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칠판에 사진을 붙여놓아 재미있게 표현한 부분이다. 부직포로 만들어 놓은 초록색 칠판을 빈 공간으로 남겨 놓기에는 여백이 넓었기 때문에 그림에 관계된 사진을 붙여놓음으로써 적절하게 표현하였다. 또한 창문의 커튼은 천 조각과 레

이스를 활용하여 실감나게 나타내 주었고 나무 재질을 나타낸 잡지를 붙여서 실기실 문과 책상을 표현해 주었다.



<그림 4> 성다은, 밀림탐험, 2005, 종이에 나무껍질, 나뭇가지, 털실, 부직포, 단추, 골판지, 색지 콜라주, 수채물감, 39×54cm

<그림 4>에 표현된 재료는 나무껍질, 나뭇가지, 털실, 부직포, 단추, 골판지, 색지, 수채물감이다. 이 그림은 초등학교 5학년 아동의 작품으로 미래에 밀림을 탐험해 보고 싶은 바램을 표현한 것이다. 밀림 속 자연을 현실감 있게 나타내기 위해 시점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이게 잡아주고 큰 나무를 기어 올라가는 뱀과 나무에 매달려 있는 코알라를 주제로 표현하였다. 뱀의 몸은 부직포로 붙여주고 코알라의 몸은 털실로 자유롭게 표현해 보았다. 털실을 한 방향으로 붙여 주었다면 단순해 보일 수도 있었으나 같은 재료라도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시각적으로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나무의 표현에 있어서도 실제 나무껍질과 나뭇가지를 직접 붙여주어 실감나게 표현한 것을 볼 수 있다. 구도나 재료표현에 있어서 아동의 재치가 엿보이는 작품이다.

② 재료를 선정한 후 재료적 특질에 적합한 이미지를 표현하는 방법

학습목표

- 주변에 있는 각종 재료를 선택해 본 후 재료의 쓰임새를 생각해 본다.
- 재료적 특성을 살려 주제를 생각해 보고 이미지를 표현하도록 한다.



<그림 5> 고주희, 시골집, 2005, 종이에 낙엽, 나뭇가지, 꽃잎, 쌀, 마카로니, 파스타 콜라주, 크레파스로 프로타주, 수채물감, 포스터물감, 54×39cm

<그림 5>는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의 작품으로 여러 종류의 낙엽, 나뭇가지, 꽃잎, 쌀, 마카로니, 파스타 재료를 정해보고 표현한 작품이다. 작품 제목은

‘시골집’으로 노을이 지는 저녁 무렵에 아름다운 풍경을 나타내었다. 주워온 낙엽을 여러 개 붙여서 나무를 표현해 보고 나뭇가지를 비슷한 길이로 잘라서 지붕의 무늬를 만들어 주었다. 붙여진 모양이나 길이가 다른 서투른 느낌이 보이지만 재료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표현한 모습이 그림에서 느껴진다. 오른쪽에 보이는 나무는 프로타주 기법으로 표현된 나뭇잎을 붙여줌으로써 다양한 표현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6> 김가연, 꽃과 화병, 2005, 종이에 색종이, 골판지, 무늬가 있는 천 콜라주, 수채물감, 색연필, 39×54cm

<그림 6>은 초등학교 2학년 아동의 작품으로 색종이, 골판지, 무늬가 있는 천을 재료로 선정하고 표현해 본 작품이다. 작품의 제목은 ‘꽃과 화병’으로 이 아동은 골판지와 색종이를 활용하여 꽃과 잎사귀를 표현해 보았다. 색종

이를 꽃 모양으로 접어서 붙여주기도 하고 색연필로 그린 꽃 모양위에 골판지를 말아서 꽃잎의 변화를 주었다. 또한 잎사귀는 색종이로 표현함에 있어서 도화지에 그냥 붙이기보다는 앞으로 살짝 말아주어 입체적인 느낌을 만들어 주었다. 화병에는 나비 무늬가 있는 천을 붙여줌으로써 화병도 표현해 주고 꽃으로 모여든 나비의 모습을 이중적으로 나타내 주었다. 선정된 재료를 잘 활용하여 방안에 있는 꽃과 화병을 효과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그림 7> 광희정, 눈사람, 2005, 색지에 솜, 무늬가 있는 천, 목장갑, 단추, 나뭇가지 콜라주, 32.5×44cm

<그림 7>은 초등학교 2학년 아동의 작품으로 색지, 솜, 무늬가 있는 천, 목장갑, 단추, 나뭇가지를 재료로 정해보고 표현한 작품이다. 작품의 제목은 ‘눈사람’으로 솜을 주재료로 겨울의 이미지를 연상해 보고 눈사람과 눈이 내

리는 풍경을 표현해 보았다. 솜을 얇게 조금씩 붙여가면서 눈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주고 준비된 천을 잘라 모자와 목도리를 만들어 주었다. 또한 모양이 다른 단추를 이용하여 눈과 눈사람 몸통 부분의 장식을 해 주었으며 목장갑과 나뭇가지로 손을 표현해 주었다.



<그림 8> 김민수, 거리풍경, 2005, 골판지에 알루미늄 호일, 스티로폼 볼, 셀로판지, 병뚜껑 콜라주, 47×33cm

<그림 8>은 초등학교 3학년 아동의 작품으로 알루미늄 호일, 스티로폼 볼, 셀로판지, 골판지, 병뚜껑을 재료로 정해보고 표현해 본 작품이다. 작품의 제목은 ‘도시풍경’으로 골판지를 바탕지로 활용해 보았다. 주재료인 알루미늄 호일을 이용해서 입체적으로 자동차를 만들어 보고 스티로폼 볼을 반으로 잘라서 자동차 바퀴를 표현해 주었다. 호일이라는 재료는 자유롭게 구길 수도 있고 뭉쳐볼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가로수의 표현 또한 둥글게 말아서 구겨보기도 하고 뭉쳐주어서 뻗어 있는 가지를 변화 있게 표현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여러 색상의 셀로판지를 활용하여 창문과 꽃, 신호등, 나

못있 등을 나타내 주었는데 자동차 불빛을 노란색 셀로판지를 이용해서 표현해 준 곳은 재료적 특성을 잘 살린 아동의 표현력을 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림 9> 이은송, 강아지, 2005, 색지에 A4용지, 색종이, 색지, 주름지, 한지 콜라주, 34×27cm

<그림 9>은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의 작품으로는 종이를 재료로 선정하고 다양한 종류의 종이 재료를 활용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해 본 작품이다. 작품의 제목은 ‘강아지’로 주제인 강아지 털을 표현함에 있어서 종이를 가늘게 찢어 종이가 말리도록 한 다음 바탕지에 여러 개를 붙여서 입체적으로 표현해 보았다. 땅의 표현도 찢은 종이를 구기거나 꼬아서 변화를 주었다. <그림 8>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입체감 있는 콜라주를 만드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는데 입체감을 유지하도록 재료를 접고, 둘둘 말고 구기고 붙이는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입체적인 부조³⁵⁾ 표현을 한다는 것은 빛과 그림자 부분을 그림 안에 집어넣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부조는 작품에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보관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³⁶⁾

3. 콜라주 기법을 응용한 수업계획안

본 연구의 수업계획안은 앞에서 제시한 재료적 측면에서의 표현활동과 다양한 기법을 중심으로 학년별 아동의 수준에 따라 지도될 수 있는 수업계획안을 구안해 보는데 있다.

수업계획안의 전개 과정은 준비과정, 발상과정, 구상과정, 표현과정, 감상과정의 5단계로 제시하였다.

준비과정에서는 제재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지며 수업목표와 제재의 내용, 성격 등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진다.

발상과정에서는 표현활동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좋은 자극제가 된다. 내면의 감정과 생각을 끌어내고 이를 표현하고자 하는 발상의 과정으로 여러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연상되어지는 이미지나 아이디어를 구체화시켜야 된다.

구상과정은 발상과정의 연상이미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다양한 주제와 방법에 대한 폭넓은 지도가 필요하다. 발상과 구상 후 표현과정에서는 구체화된 아이디어를 형상화 시킨다.

감상과정에서는 서로의 작품을 통하여 타인을 이해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받아들이는 긍정적인 태도를 익히고 표현 의욕을 향상시킬 수 있다.

35) 부조 ; 평면상에 형상이 떠오르게 하는 조형기법

36) F. 위야르 -르투르네르, <지능과 창의력이 풍부해지는 콜라주 놀이>, 도서출판 종이나라, 2005, p.40-41

<표 4> 수업계획안 1

단 원	다양한 표현		학습형태	개별학습
제 제	모자이크 기법 - 색 모래로 나타내기			
대 상	초등학교 1학년			
학습 목표	작은 조각이 모이면 큰 면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계획하고 구성해 보는 치밀성을 기를 수 있다.			
준비물	색모래, 문구용 본드, 목공용 접착제, 도화지, 사인펜, 색연필 등			
활 동 내 용 및 방 법	과정	교사/아동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습 분위기 조성 -동기 유발 자료 제시 (모자이크 기법을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료-종이, 구슬, 돌, 색 소금, 곡식 등) -학습 내용 및 목표 확인(작은 조각에서부터 큰 조각까지 무엇이든 모자이크 재료가 될 수 있으며 질감이 느껴지는 모래를 이용하여 표현할 수 있다. 		
	발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고작품 보고 이야기하기 (작가의 작품, 아동작품) 주제, 표현방법, 재료 등을 알아본다. 느낌을 서로 이야기해보고 모자이크 기법의 특징에 대해 발표해 본다. 		
	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작할 주제 정하기 세밀한 표현보다는 큰 윤곽이 나타날 수 있는 주제를 택한다.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현하기 색 모래를 색깔별로 준비하고 종이 위에 밑그림을 그린다. 그림 위에 본드나, 풀, 목공용 접착제를 칠하고 원하는 색깔의 색 모래를 뿌려준다. 단색을 뿌려주기도 하고 색 모래를 섞어서 배합된 모래를 뿌려 준다. 그림이 완성되면 불지 않은 모래를 살짝 털어 준다. 면이 마른 후 표현된 이미지 위에 사인펜이나 색연필로 상상한 것을 덧그린다. 		
	감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기 평가하기 자기작품에 나타난 표현의도를 설명한다.(서로의 작품을 살펴보고 잘 된 부분이나 특징 있게 표현된 부분을 이야기하기) -차시 예고 -정리 정돈 		

<표 5> 수업계획안 2

단 원	상상의 세계		학습형태	개별학습
제 제	사진을 활용한 포토몽타주			
대 상	초등학교 2학년			
학습 목표	여러 가지 사진 이미지의 특징을 살려 다양한 방법과 아이디어로 재미있고 독특한 표현을 할 수 있다.			
준비물	도화지, 사진, 그림, 수채용구, 크레파스, 색연필, 풀, 가위 등			
활 동 내 용 및 방 법	과정	교사/아동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습 분위기 조성 -동기 유발 자료 제시 -학습 내용 및 목표 확인(신문, 잡지, 사진 등을 오려내어 여러 가지 재미있는 그림이 되도록 꾸미는 것으로 무의식적인 이미지를 끌어내거나 초현실적인 형태의 우연적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다.) 		
	발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고작품 보고 이야기하기(아동작품) 주제, 표현방법 등을 알아본다. 참고작품을 보고 여러 가지 사진이나 그림들을 오려 재미있는 작품이 되게 꾸미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한다. 		
	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작할 주제 정하기 상상의 주제에 대하여 이야기 한다. 이상한 나라, 미래도시, 상상의 동물 등 표현할 주제를 다양한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 주제에 맞는 사진을 준비한 자료에서 찾아보고 다른 친구들과 사진을 교환해 본다.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면 구상하기 수집한 여러 가지 이미지를 늘어놓고 떠오르는 생각이 있으면 다른 것과 관련지어 이리저리 늘어놓아 본다. 선정한 주제에 맞게 표현하기 강조하고 싶은 주제를 채색도구나 색연필 등을 이용하여 완성도를 높인다. 		
	감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완성 -자기 평가하기 자기작품에 나타난 표현의도를 설명한다.(서로의 작품을 살펴보고 잘 된 부분이나 특징 있게 표현된 부분을 이야기하기) -차시 예고 및 정리 정돈 		

<표 6> 수업계획안 3

단 원	우연적 표현		학습형태	개별학습
제 제	콜라주 재료 자체를 이용한 주제 표현하기			
대 상	초등학교 3학년			
학습 목표	콜라주 재료 자체를 가지고 우연적인 기법에서 오는 의외의 표현을 통해서 주제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준비물	각종 종이류, 여러 가지 질감의 천 조각, 풀, 가위, 물감, 성냥, 모기향			
활 동 내 용 및 방 법	과정	교사/아동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습 분위기 조성 -동기 유발 자료 제시 나비모양, 동물 등을 연상케 하는 데칼코마니 작품 어떤 형상을 연상케 하는 얼룩지거나, 불에 탄 종이 조각 또는 천 조각 -학습 내용 및 목표 확인(준비한 천과 종이류의 재료를 이용하여 형태를 변형하거나 불로 태워 우연적인 형상을 만들어 봄으로써 자신의 사고력을 자유롭게 확장할 수 있다.) 		
	발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고작품 보고 이야기하기(작가의 작품, 아동작품) 참고작품의 주제, 재료, 표현 방법 등을 알아본다. 느낌을 서로 이야기해 본다. 		
	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료를 어떠한 방법으로 변형, 구성할 것인지 생각하기 (오리기, 찢기, 접기, 구기기, 태우기, 겹치기)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현하기 종이 또는 천 조각을 이용하여 그것을 찢어 보거나, 구겨 보거나, 한데 모아 펼치고 나열하여 보거나 불에 태워 본다. (불을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므로 교사와 함께 모기향을 피워서 태워보도록 한다.) 우연적인 상황에서 상상력과 연상력을 발휘하여 동식물, 산, 도시공간, 그 외의 특이한 형상을 유추하여 이미지화한다. -완성 		
감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기 평가하기 자기작품에 나타난 표현의도를 설명한다.(서로의 작품을 살펴 보고 잘 된 부분이나 특징 있게 표현된 부분을 이야기하기 -차시 예고 -정리 정돈 			

<표 7> 수업계획안 4

단 원	재미있는 표현	학습형태	모둠별 학습
제 제	인공재료를 활용한 콜라주 기법		
대 상	초등학교 4학년		
학습 목표	인공재료를 활용하여 새로운 시각으로 자유롭게 내면의 세계를 표현할 수 있으며 모둠별 학습을 통해서 조화로운 화면 구성을 할 수 있다.		
준비물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인공재료, 가위, 풀, 접착제, 채색도구 등		
활 동 내 용 및 방 법	과정	교사/아동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습 분위기 조성 -학습 내용 및 목표 확인(콜라주 기법의 다양한 표현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며 주변의 모든 생활 용품들이 작품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 또한 모둠별 학습에 의한 협동심 고취와 상호 이해심을 높인다.) 	
	발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각의 모둠을 6명으로 구성하기 -참고작품 보고 이야기하기(작가의 작품, 아동작품) 참고작품의 주제, 재료, 표현 방법 등을 알아본다. 느낌을 서로 이야기하기하고 협동작업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작할 공동 주제 정하기 모둠별로 자유분방한 대화와 토의, 협의를 거쳐 작품계획서를 작성해 보고 역할분담과 재료를 분류해 본다. (재료의 쓰임새와 표현 효과 토의)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현하기 토의를 거쳐 정해진 주제를 스케치하고 6조각으로 나눈다. (전체적인 스케치는 모둠별로 선출된 조장이 그리도록 한다.) 전체적인 분위기를 고려하면서 자신의 부분에 적합한 인공재료를 활용하여 개성적으로 표현해 본다. 물감으로 채색하거나 색연필, 파스텔 등과 같은 재료를 사용하여 완성도를 높인다. 각자 완성한 부분을 함께 모아보고 조화롭게 표현되었는지 살펴본다. 	
	감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둠별 제작 과정 및 아이디어, 주제를 발표하고 서로 비교하기 (모둠별 작품을 살펴보고 잘 된 부분이나 특징 있게 표현된 부분, 보완점을 이야기하기) -차시 예고 및 정리 정돈 	

<표 8> 수업계획안 5

단 원	판을 이용한 표현		학습형태	개별학습
제 제	콜라그래피 판화			
대 상	초등학교 5학년			
학습 목표	콜라주 기법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는 판화적 표현을 통해 재료에 따른 강약이나 소재의 입체감을 체험할 수 있다.			
준비물	각종 종이류, 형질류, 칠류, 접착제, 로울러, 판화잉크			
활 동 내 용 및 방 법	과정	교사/아동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습 분위기 조성 -동기 유발 자료 제시(블록 판화에 대한 특징적인 설명-동전) -학습 내용 및 목표 확인(판지, 나무판, 금속판 등에 형질, 실, 나뭇잎 등 다양한 소재를 판에 접착시킨 후 찍어내는 블록판화로 콜라주 판화라고도 한다.) 		
	발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고작품 보고 이야기하기(작가의 작품, 아동작품) 주제, 재료, 표현방법 등을 알아본다. 참고작품을 보고 여러 가지 재료를 부착하여 다양한 질감이 느껴질 수 있는 판 제작에 대해 이야기 해본다. 		
	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작할 주제를 정하고 어떠한 재료를 붙여 표현할 것인지 구상하기 표현할 부분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한다. 구상내용에 맞게 재료를 여러 형태로 배치해 보고 수정한다.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현하기 밀그림 그리기(이미지를 단순화시키고 주제를 뚜렷하게 그리는 것이 좋다.) 이미지 표현하기(판 위에 다양한 재료로 이미지에 맞게 구성한다.) 잉킹하기(유화물감이나 판화잉크를 준비하고 로울러로 골고루 넓게 펴 발라서 이미지가 잘 나올 수 있도록 한다.) 찍기(콜라주 판은 요철이 있으므로 두툼한 종이를 사용하여 찍는 것이 좋다.) -완성(콜라주한 판 자체가 저부조의 작품이 될 수도 있다.) 		
	감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기 평가하기 자기작품에 나타난 표현의도를 설명한다.(서로의 작품을 살펴 보고 잘 된 부분이나 특징 있게 표현된 부분을 이야기하기) -차시 예고 및 정리 정돈 		

<표 9> 수업계획안 6

단 원	꾸미기와 만들기		학습형태	모둠별 학습
제 제	다양한 재료를 활용한 달력 만들기			
대 상	초등학교 6학년			
학습 목표	주변의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계절적 특성을 살린 창의적인 달력을 제작할 수 있다.			
준비물	다양한 자연재료와 인공재료, 수채용구, 사인펜, 색연필, 풀, 접착제, 가위			
활 동 내 용 및 방 법	과정	교사/아동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습 분위기 조성 -동기 유발 자료 제시 -학습 내용 및 목표 확인(생활에 필요한 달력을 제작해 봄으로써 주제와 재료에 맞는 표현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만들어진 작품은 생활공간을 장식하는 데 쓰일 수 있다. -각각의 모둠을 3명으로 구성하기 		
	발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고작품 보고 이야기하기(평면달력, 입체달력, 일력, 월(달)력, 연력) 표현방법, 재료 등을 알아본다. 달력의 특징과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본다. 		
	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작할 달력의 계절적 특징에 맞는 주제 정하기 각 모듬별- 1월(1모듬), 2월(2모듬) 등으로 제작 모듬별로 자유분방한 대화와 토의, 협의를 거쳐 역할분담과 재료를 분류해 본다. (재료의 쓰임새와 표현 효과 토의)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현하기 모듬별로 정해진 달의 계절적 특성을 살려 분위기가 잘 표현될 수 있도록 스케치한다.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평면과 입체의 다양한 표현이 될 수 있도록 자유롭게 제작해 본다. 그림과 문자가 조화롭게 표현될 수 있도록 한다. -완성(모듬별로 완성된 달력은 각 반의 환경자료로 활용하기) 		
	감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듬별 제작 과정 및 아이디어, 주제를 발표하고 서로 비교하기 (모듬별 작품을 살펴보고 잘 된 부분이나 특징 있게 표현된 부분, 보완점을 이야기하기) -차시 예고 및 정리 정돈 		

V. 결 론

미술교육은 아동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무한한 창의력을 발달시켜 주며 독창적이고 자유로운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아동들이 미술에 흥미를 갖게 되면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적극적인 수업전략이 필요하다. 즉, 교사가 생활주변의 여러 가지 재료나 기법을 활용해 미술수업에 적극 활용하고 수업 방식을 다양화함으로써 아동의 창의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창의성 신장을 위한 미술수업의 방안으로서 현대회화의 주요 흐름 중 하나인 콜라주 기법을 선택하였다. 콜라주 기법은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여 아동의 상상력 표현을 돕고 교육 현장에서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수업 방법이기 때문이다. 콜라주 기법을 이용한 수업 계획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먼저, 콜라주 기법과 창의성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콜라주 기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다음으로, 7차 교육과정에 나타난 초등학교 콜라주 수업 내용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재료적 측면에서 콜라주 기법의 응용방안을 모색하고 수업계획안을 작성하였다.

재료를 활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제시해 보았는데 첫째, 주어진 주제에 맞춰 여러 가지 재료를 붙여 부착해 보는 경우와 둘째, 재료를 선정하고 재료적 특질에 따라 적합한 이미지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구분하였으며 이에 따른 아동들의 작품을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 다양한 재료를 활용한 콜라주 기법은 표현에 있어서 적극적이며 자유롭고 독창적인 화면구성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시각의 다양성과 사물에 대한 관찰력을 증대시킬 수 있었다. 또한 콜라주 기법의 특성인 다양한 재료의 사용에서 오는 비유

적, 연상적, 상징적인 특성과 표현의 자유 등이 아동들의 상상력과 호기심 및 사고의 자유로운 확장을 도모하여 창의성 신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콜라주 기법은 새로운 표현력 개발과 다양한 사고의 기회를 부여하는 교육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학습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콜라주 기법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교사와 부모는 아동에게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인간의 활동이 가지는 의미를 아동 스스로 깨닫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즉, 아동들이 능동적이고 자율적으로 발상하여 표현하고 싶은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에서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동에게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환경과 주변에서 보고, 듣고, 만지는 모든 것이 표현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재료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갖게 해 주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다양한 재료를 수집하여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사물함 준비와 같은 물리적 여건이 충족되어 있어야 한다. 교사는 다양한 미술연수 참여와 같은 자기 계발을 통하여 현대 미술의 변화된 흐름을 이해하고 아동에게 새로운 미술세계를 소개시켜 주어야 한다. 또한 교사 스스로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상상력을 끌어낼 수 있도록 정형화된 고정관념의 틀을 깨뜨리고 사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콜라주 기법을 미술교육에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아동들이 무한한 창의성을 펼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채로운 표현활동 방법이 개발되어야 하겠다.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교육인적자원부, 즐거운 생활 1 2학년 교과서,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2005
교육인적자원부, 즐거운 생활 1 2학년 교사용 지도서, 대한 교과서 주식회
사, 2005

교육인적자원부, 미술 3 4 5 6학년 교과서,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2005
교육인적자원부, 미술 3 4 5 6학년 교사용 지도서,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2005

박찬국 외 17인, 현대 미술의 기초개념, 도서출판재원, 2001

이일, 현대미술의 시각, 미진사, 1985

H. W. Enerson, 김윤수 역, History of Art, 1977

카린 토마스, 20세기의 미술, 문예출판사, 1994

니코스 스탠고스, 현대미술의 개념, 문예출판사, 1994

미셸라공, 이일역, 새로운 예술의 탄생, 정음사, 1976

베르너 슈피스, 막스에른스트, 열화당, 1994

E. Lusie-smith, 이열모 역, 현대미술, 형성출판사, 1985

김춘일, 팝 아트와 현대인, 열화당, 1979

김삼량, 미술교육론, 미진사, 1992

F. 위야르-르투르뇌르, 지능과 창의력이 풍부해지는 콜라주 놀이, 도서출판
종이나라, 2005

교육부, 초등학교 교육과정, 대한 교과서 주식회사, 1997

현광덕, 초등 저학년의 미술교육론, 미술교육 논총 2집, 한국미술교육학회,
1993

이명호, 창의적 아동미술교육, 창지사, 2003

한국초등미술학회, 초등미술과 교육학, 교육과학사, 1997

황지희, 공마리아, 집단 미술활동이 초등학교 아동의 창의성과 학습흥미에 미치는 효과, 놀이치료 연구 제 7권 1집, 2003

한국초등미술교육학회, 초등미술과 교육학, 교육과학사, 1997

월간 미술 편집부, 세계미술용어사전, 중앙일보사, 1989

<국외문헌>

John Golding, Cubism ; A History and an Analysis N.Y, 1959

McGraw, Hill Dictionary of ART2, McGraw Hill Publishing Co. LTD,
1969

<학위논문>

차경대, “콜라주 기법을 통한 중학생의 창의력 신장 방안”,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이진아, “현대미술에 있어서 플라주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경기대 조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이은실, “콜라주 기법을 통한 표현능력 신장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ABSTRACT

A Study on Teaching Method of Creative Art Activities in Art Education - focusing on collage technique -

Lee, Ji-Yeon

Major in Fine Art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As growing to high pitched present-day society, much emphasis is placed on an individual than the mass. As for this reason, the value of an individual who performs their competency in mass is becoming more important. Means of developing and maintaining humanity in this rapidly changing situation is creativity. Creativity can be educated by art education which emphasizes on emotion, creation and individuality. Through this course, children can make new and original expressions reflecting their thoughts, feelings and experiences.

But development of creativity by art education cannot be expected through standardized cramming system of education done in schools at the present. The environment of letting children do totally by themselves in intension of respecting their spontaneities,

interests and desires in art classes can decrease their creativities. Teachers should help children experience new materials and art techniques other than noninterference education and give opportunities to express oneself and maximize their potentialities.

This study consists of five chapters. The first chapter is about the necessity, the object, the content and the method of expressive activities using collage in art education. The second chapter consists of theoretical background of collage in notion and development of collage in representative art stream in contemporary art. The third chapter is about educational effect and expansion of creativity by collage. Relationship between collage and creativity is studied to find various collage technique to apply in lessons and educational effect by this progress is suggested. The fourth chapter is about application of collage in art education. Drawbacks are pointed out by analyzing elementary school collage class in 7th education course and an application plan of collage is sought in material aspect. Through this process, a new teaching proposal is presented. The teaching proposal frames a draft to apply various collage techniques considering the level of children in each grade. The development of the proposal is presented in five levels - preparation course, conception course, design course, expression course and appreciation course. The fifth chapter which is the conclusion, suggests a direction to activate collage technique which can endow energy and soul in school sce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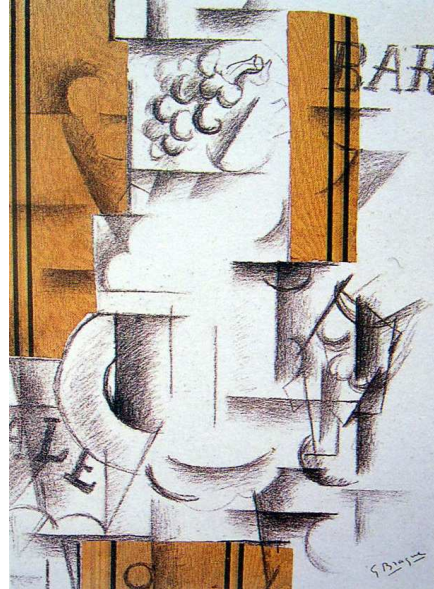
The result of bringing in collage in art education is that children can experience various expressive potentials through probing materials. This progress can cause them spontaneous interest and also can improve

observation of things around them. Children can earn confidence in art by expressing through photographs or other medium instead of drawing realistically. In addition, imagination of art can be enriched by experiencing unexpected effect through applying new methods and creative expressions can be ma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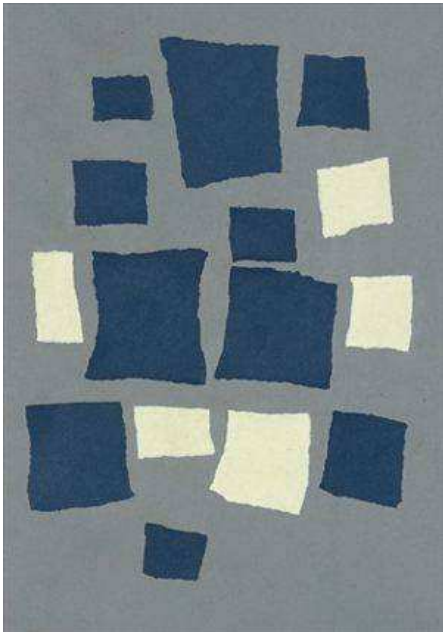
도판



<도판1> 파블로 피카소, 등의자가 있는 정물, 1912, 캔버스에 유채, 등나무의자 문양의 종이, 타원형의 바줄 콜라주, 34.9×27cm



<도판2> 조르주 브라크, 과일접시와 유리잔이 있는 정물, 1912, 종이위에 목탄, 벽지 콜라주, 44.5×62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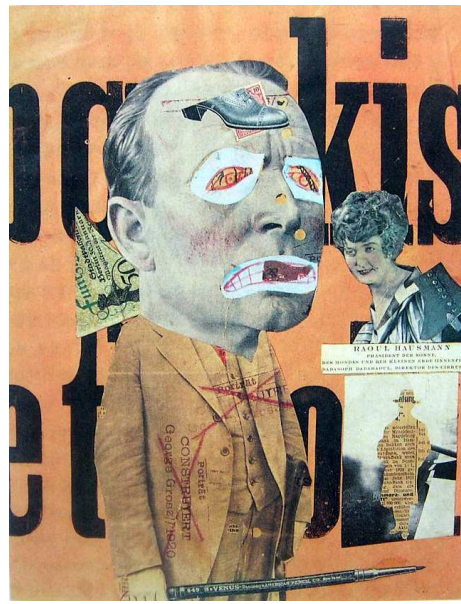
<도판3> 한스 아르프, 우연의 법칙에 따라 배열된 사각형들, 1917, 찢어 붙인 종이, 34.6×48.6cm



<도판4> 마스셀 뒤샹, 샘, 1917, 기성품인 변기



<도판5> 쿠르트 슈비터스, 메르츠 410 무엇이든지간에, 1922, 신문지와 각종 전단 같은 종이들, 새의 깃털 등을 콜라주



<도판6> 라울 하우스만, 미술평론가, 1919-20, 포토몽타주, 25.4×31.8cm



<도판7> 막스 에른스트, 잎사귀들의 습성, 1925, 종이 위에 구아슈로 프로타주, 26×42.2cm



<도판8> 리처드 해밀턴, 오늘날의 가정을 이토록 색다르고 멋지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1956, 몽타주, 24.8×26cm